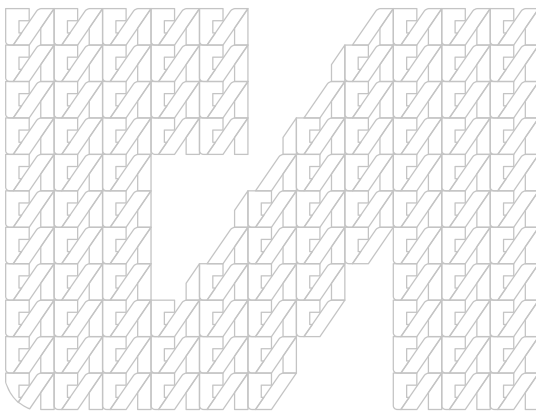


도시정체성 재정립연구 4

- 정체성 인식에 관한 사례조사

한상헌 외



연구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상헌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병선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김강우 / 기획조정실 초빙연구원 • 이정림 /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 정선기 /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 손병우 /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김창수 / 도시문화연구소 대표 • 민병기 /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 오세섭 / 중앙대 영상학과 박사
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소연 /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석사수료

정책연구 2017-17

도시정체성 재정립연구 4 : 정체성 인식에 관한 사례조사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7년 8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9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 쇄 청맥기획 TEL 042-487-2589 FAX 042-487-188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 례

1장. 연구 목적과 방법	1
1. 연구배경과 목적	3
2. 연구 방법	5
2장 조사 지역 개관	7
1. 연구대상 지역의 개요	9
2.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	13
3장. 도마동, 정림동, 가수원동 지역민이 느끼는 도시정체성	25
1. 지역 주민들의 현실 인식과 지역정체성	27
2. 지역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지역정체성	37
4장. 둔산3동, 탄방동, 갈마동 지역민이 느끼는 도시정체성	45
1. 거주민들의 기억과 현재의 생활	47
2. 대전의 도시 정체성에 대한 인식	63
5장.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지역민이 느끼는 도시정체성	71
1. 도시, 도시정체성의 변동	73
2. 기억 속 마을과 삶	76
3. 현재 생활세계에 대한 인식	84
4. 미래에 대한 기대	93
6장. 결론; 연구결과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97
1. 연구결과의 의미	100
2. 정책적 함의	105
참고문헌	108

표 차례

[표 1] 본 연구에 앞서 진행된 ‘도시정체성 연구’	5
[표 2] 연구대상 지역의 면적	13
[표 3] 2015년 산업별 종사자(도마동, 정림동, 가수원동)	21
[표 4] 2015년 산업별 종사자(둔산3동, 탄방동, 갈마동)	22
[표 5] 2015년 산업별 종사자(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23

그림 차례

[그림 1] 도마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14
[그림 2] 정림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14
[그림 3] 가수원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15
[그림 4] 65세 이상 인구비율(도마동, 정림동, 가수원동)	15
[그림 5] 둔산3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16
[그림 6] 탄방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16
[그림 7] 갈마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17
[그림 8] 65세 이상 인구비율(둔산3동, 탄방동, 갈마동)	17
[그림 9] 오정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18
[그림 10] 대화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19
[그림 11] 회덕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19
[그림 12]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20
[그림 13] 오정동 공구업체 분포	87

1장

연구 목적과 방법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1. 연구배경과 목적

대전광역시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부권의 핵심 거점도시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국내의 다른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을 통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여타 다른 광역 대도시들에 비해 도시 인구의 포용성과 다양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지만, 반면에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중요해지고 있다.

그간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의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상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특성과 공통감에 기반한 내적인 특성 중심의 논의보다는 외적인 이미지와 상징성 중심의 정체성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박노동 2014). 이는 다분히 대전의 도시 성장 과정이 내적인 요인보다는 국가의 주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전략적 관점에 강하게 작용하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대전세종연구원은 도시의 외형적 이미지와 상징성 중심의 정체성 연구를 벗어나, 일차적으로 도시의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정체성 논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특성에 대한 일련의 양적 및 질적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그간의 대전광역시의 정체성 연구가 과학, 군사, 행정 등 국가 정책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았던 특성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도시민의 내적인 공통감이나 생활의 특성 등과 같은 내용적 측면보다는 의식 조사를 반복하는 형식적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자체적인 반성에 기인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대전의 도시 정체성 연구는, 도시 정체성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반과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진행된 ‘대전 도시 정체성 재정립 연구 (I)’ 을 시작으로, II권에서는 대전의 산업구조 변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학도시의 모습,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정치·문화적 특성 등 대전의 도시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또한 III권에서는 생활권 중심으로 상이한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 단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의식, 정서적 소속감, 집단별 정체성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앞의 생활권 중심의 질적 조사연구의 후속 작업으로서 대전의 도시정체성 형성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지역 사회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도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전의 생활권을 크게 도시재생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신도심 지역과 그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원도심 구역, 그리고 오랫동안 도시 개발의 손이 미치지 않아서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민층 생활 지역을 구분해서 접근한다.

대체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의 차이는 주민의 공동체적 특성과 생활양식의 차이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지역별 주민에 대한 심층적인 면접조사는 그들의 생활, 의식, 정서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이전 연구에서 조사된 지역을 제외한 서민들 중심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도심에서 벗어나 있는 서구의 도마동, 정림동, 가수원동 그리고 신도심의 중심 지역과 인접해 있는 둔산3동, 탄방동, 갈마동을 비롯해 대덕구의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등을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선별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지난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지역특성에 대한 질적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한다.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는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고,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주인의식을 공유하고, 자부심을 제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조사연구로 얻어진 결과는 도시의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정책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도시정체성 관련 파생연구의 선행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대상과 기법을 정교화 하고, 향후 정체성 연구 결과를 정밀하게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결국 대전시민의 지역정체성에 관한 인식 수준과 사회적 역량을 제고하고,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지역 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조사연구는 대전의 도시정체성 재정립의 기반 연구를 목적으로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체성 재정립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앞서 진행된 연구의 후속 작업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 성과의 보완적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 I, II, III은 방법론적 연구, 문헌학적 연구, 질적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였고,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정체성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지역민의 특성, 역량, 의식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연구라 할 수 있다.

[표 1] 본 연구에 앞서 진행된 ‘도시정체성 연구’

선행연구	연구내용
도시정체성연구 I (2015년 상반기)	도시정체성 연구의 이론적 검토 및 대전의 지리적, 상징적, 제도적 형상화에 초점을 두고 영역별 분석
도시정체성연구 II (2015년 하반기)	I권에서 놓쳤던 영역과 세부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서 대전의 산업과 경제, 대전의 과학과 대덕연구단지, 대전시민의 문화적 특성, 대전시민이 정치문화 등의 주체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음
도시정체성연구 III (2016년 상반기)	개별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생활권별 행위자들의 인식(의식)에 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정체성의 실질적 내용을 탐구

조사 대상 지역에 따라 연구팀을 구성하여, 각 지역에 대한 기초현황과 변화과정에 관한 문헌 연구 및 이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의 열망과 정체성 인식수준에 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팀은 대전의 신도심으로서 행정과 주거 편의시설이 밀집한 둔산동, 탄방동, 갈마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팀은 1980년대 이후 대전 외부의 유입 인구가 급증하였으나 둔산지역과 관저지역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도마동, 정림동, 가

수원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세 번째 팀은 대전산단과 농수산유통센터가 밀집한 경제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역이면서도 주거여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대화동, 오정동, 읍내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고, 조사 샘플은 지역, 연령, 계층 특성을 고려하여 오피니언리더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조사 내용은 생활권별 주민이 가지는 사회의식, 공동체 의식, 결속감, 도시 정체성에 관한 인식 등의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2장

조사 지역 개관

1. 연구 대상 지역의 개요
2.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

1. 연구대상 지역의 개요¹⁾

1) 도마동, 정림동, 가수원동

(1) 도마동

도마동(桃馬洞)은 서구의 중심에 위치한 동으로 법정동의 명칭이며, 행정동으로는 도마1동과 도마2동이 있다. 도마동의 서쪽에는 도솔산(207m)이 있고 동쪽에는 유등천이 흐른다. 도마1동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재래도심 지역으로 도마큰시장이 상업 활동의 중심지다. 도마2동은 아파트단지(40%)와 단독주택(60%)으로 구성된 주거지역이지만 배재대학교, 서대전여자고등학교, 대전도마중학교, 유천초등학교, 대전시 평생교육문화센터 등 다수의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는 특징이 있다.

(2) 정림동

정림동(正林洞)은 서구의 남부에 위치한 동으로 법정동 및 행정동의 명칭이다. 정림동의 북쪽에는 도솔산이 있고 서쪽에는 갑천이 흐른다. 정림동은 단독주택(23%)과 아파트단지(77%)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교 농업이 발달한 도농복합지역이다. 즉 정림동은 법정동인 괴곡동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3) 가수원동

가수원동(佳水院洞)은 서구의 서남부에 위치한 법정동 및 행정동의 명칭이다. 가수원동의 남쪽에는 구봉산(264m)이 있고 동쪽에는 갑천이 흐른다. 가수원동은 서쪽으로 신개발지역인 도안신도시와 인접해있고 동부에는 시

1) 지역의 개요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각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한국지리지 대전광역시』(2015), 대덕구 통계연보, 서구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멘트 공장, GS칼텍스 대전 저유소 등 공장지대가 밀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자연부락을 보유한 농촌지역이 있다. 또한 가수원동의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 제4호선(계백로)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2) 둔산3동, 탄방동, 갈마동

(1) 둔산3동

둔산3동(屯山3洞)은 서구의 북동부에 위치한 행정동의 명칭이다. 둔산3동의 동쪽에는 유등천이 흐르며, 서쪽과 북쪽으로는 대전의 변화가인 둔산1동, 둔산2동이 인접해 있다. 둔산3동은 주로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일반 주거지역이다. 둔산3동은 과거 삼천동이라는 이름에서 2009년 변경된 지명으로, 이는 주민들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삼천동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명 변경을 요구해왔는데, 인접한 둔산1동과 둔산2동의 인지도와 지가상승 등의 영향 때문이었다. 즉, 2008년 동명변경에 관한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됐고 7,307가구의 97.7%가 찬성의사를 표하면서 이후 동명이 변경됐다.

(2) 탄방동

탄방동(炭坊洞)은 서구의 북동부에 위치한 행정동 및 법정동의 명칭이다. 탄방동의 동쪽에는 유등천이 흐른다. 탄방동은 1980년대부터 1995년까지 둔산지구 구획정리 사업의 일환에 포함되어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됐다. 하지만 동 전체가 아닌 부분만이 개발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동 내부에서는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건물, 다가구 주택, 원룸 촌 등이 공존하고 주민구성의 이질화가 나타났다. 또한 문화재 도산서원이 위치한 남선공원이 있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이 입주해있어 교통의 혼잡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3) 갈마동

갈마동(葛馬洞)은 서구의 북부에 위치한 법정동의 명칭이며, 행정동으로는 갈마1동과 갈마2동이 있다. 갈마동의 서남쪽에는 120만평 규모의 월평공원이 있다. 갈마동에는 14개의 병원시설이 있으며, 행정·금융·상업 지구가 형성된 둔산동과 인접하여 생활의 편리함이 있다. 갈마1동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이 다수이며 갈마2동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원룸·투룸 촌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3)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1) 오정동

오정동(梧井洞)은 대덕구의 남부에 위치한 법정동 및 행정동 명칭이다. 오정동의 서쪽에는 유등천이 흐른다. 오정동의 대표 시설은 오정동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1987년 개장하여 약 700여명의 입주 종사자가 일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물류량의 규모는 수산물 3,478톤, 농산물 151,309톤에 달한다. 즉, 오정동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물류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형성되며 유동인구가 많은 특징이 있다.

(2) 대화동

대화동(大禾洞)은 대덕구의 중앙에 위치한 행정동 및 법정동 명칭이다. 대화동은 대전공업의 중심지역으로 대전산업단지 및 산업용재 유통단지가 있다. 이곳의 대전1·2 산업단지는 수도권 공장을 분산하고 대전지역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7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현재 입주업체 수

는 186개소이며 대화동 주변과 읍내동까지 포함하면 440개소의 업체가 있다. 주된 업종으로는 기계, 금속,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이다. 이처럼 도심 안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동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주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이다. 또한 산업경기 변동에 따라 잦은 고용으로 유동인구가 많다.

(3) 읍내동

읍내동은 대덕구의 회덕동(행정동)에 속한 법정동의 명칭이다. 읍내동의 서북쪽에는 계족산(423.6m)이 위치해 있으며, 대전 제1산업단지가 입지해있다. 읍내동이 속한 회덕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지270ha, 300농가가 있으며 동 전체면적의 86%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

1) 면적

조사지역의 면적은 서구의 가수원동이 10.12km²로 가장 넓으며, 다음으로는 정림동 6.04km², 도마동 3.4km², 대화동 3.16km², 오정동 3.06km², 갈마동 2.23km², 둔산3동 0.75km², 읍내동 순이다.

[표 2] 연구대상 지역의 면적

구분		면적(km ²)	비고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3.4	도마1동, 2동 포함
		정림동	6.04	
		가수원동	10.12	
		둔산3동	0.75	
		탄방동	1.65	
		갈마동	2.23	갈마1동, 2동
	대덕구	오정동	3.06	
		대화동	3.16	
		회덕동 ²⁾	16.83	읍내동, 연축동, 신대동, 와동, 장동

자료: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덕구청(2017.1)

2)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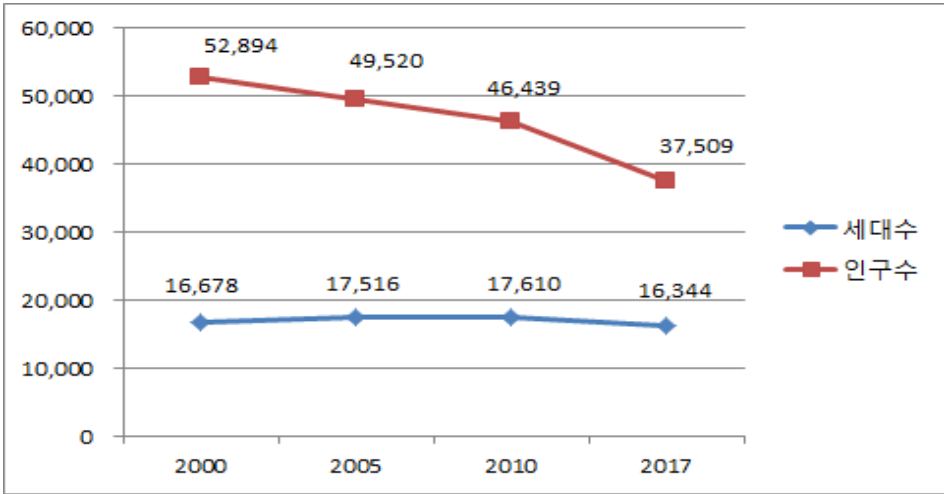
(1) 도마동, 정림동, 가수원동

① 도마동

도마동의 세대수는 2000년 16,678세대에서 2017년 16,344세대로 소폭 감소했으며, 반면에 인구수는 2000년 52,894명에서 2017년 37,509명으로 15,385명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큰 인구변동을 보인다.

2) 조사지역인 읍내동은 법정동명으로 회덕동(행정동) 관할지역 아래 있으며 공식통계자료도 회덕동으로만 집계되어 있어 이를 제시했다.

[그림 1] 도마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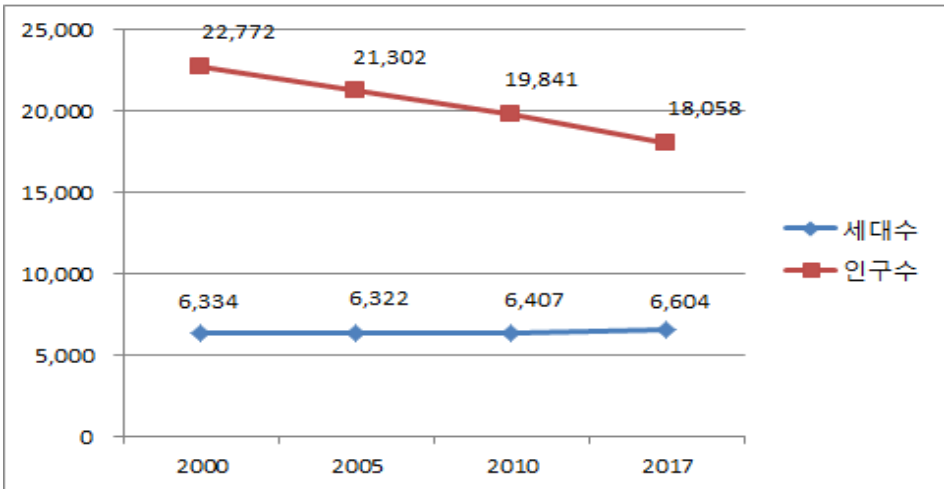


자료: 「서구 통계연보」 각 년도

② 정림동

정림동의 세대수는 2000년 6,334세대에서 2017년 6,604세대로 소폭 증가했으며, 반면에 인구수는 2000년 22,772명에서 2017년 18,05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2] 정림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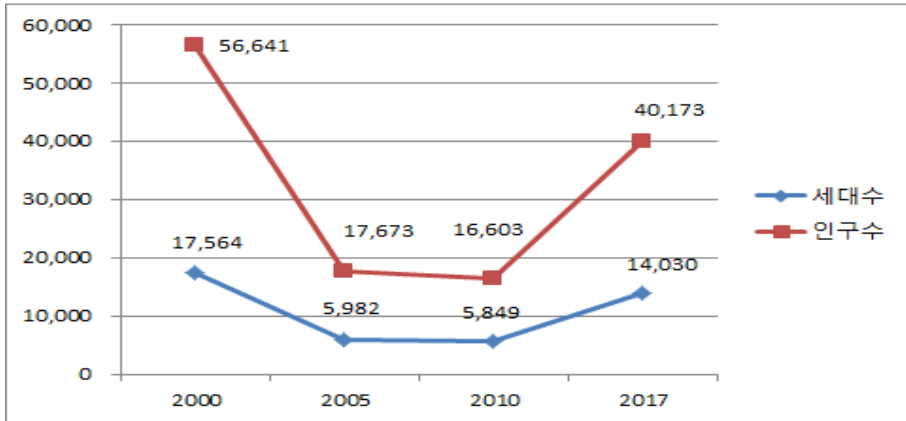


자료: 「서구 통계연보」 각 년도

③ 가수원동

가수원동의 세대수는 2000년 17,564세대에서 2017년 14,030세대로 소폭 감소했으며, 반면에 인구수는 2000년 56,641명에서 2017년 40,173명으로 16,468명이 감소하여 큰 변화를 보인다.

[그림 3] 가수원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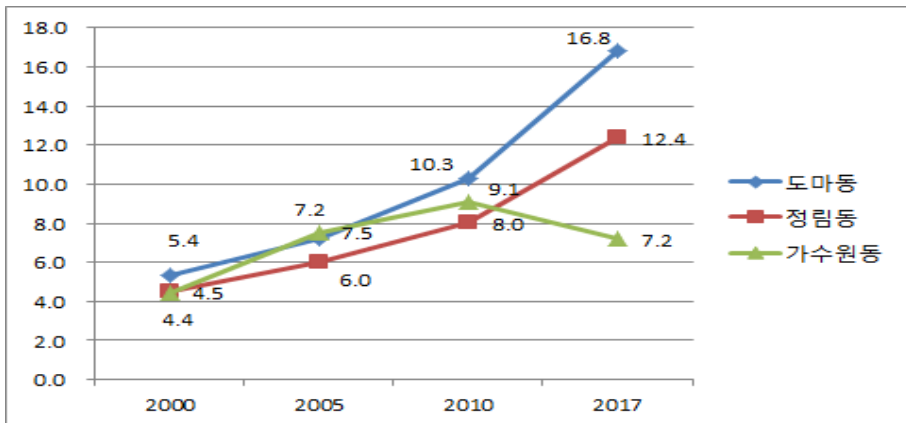


자료: 「서구 통계연보」 각 년도

④ 65세 이상의 인구비율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2000년과 비교해서 2017년 현재 도마동, 정림동, 가수원동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노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도마동으로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2017년 11.4%p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정림동(7.9p%), 가수원동(2.8p%)순이다.

[그림 4] 65세 이상 인구비율(도마동, 정림동, 가수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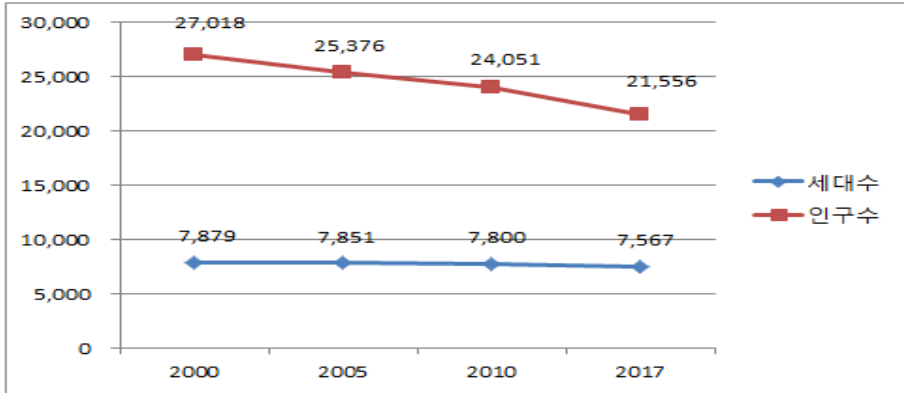
자료: 「서구 통계연보」 각 년도 자료 재구성(단위: %)

(2) 둔산3동, 탄방동, 갈마동

① 둔산3동

둔산3동의 세대수는 2000년 7,879세대에서 2017년 7,567세대로 소폭 감소했으며, 인구수도 2000년 27,018명에서 2017년 21,556명으로 감소했다.

[그림 5] 둔산3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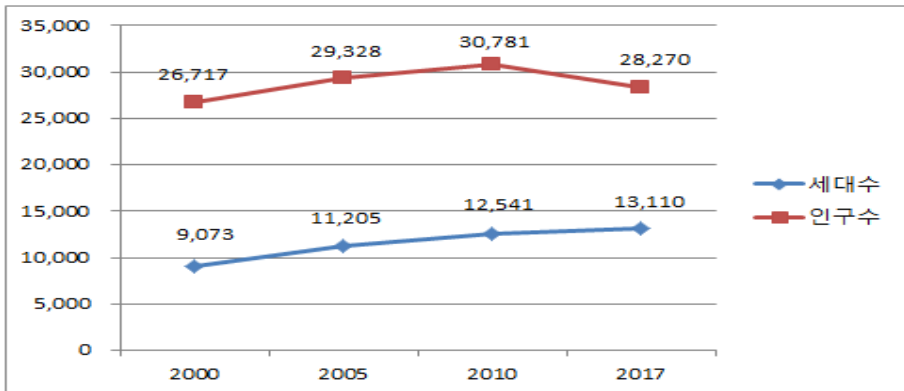


자료: 「서구 통계연보」 각 년도

② 탄방동

탄방동의 세대수는 2000년 9,073세대에서 2017년 13,110세대로 증가했으며, 인구수도 2000년 26,717명에서 2017년 28,27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탄방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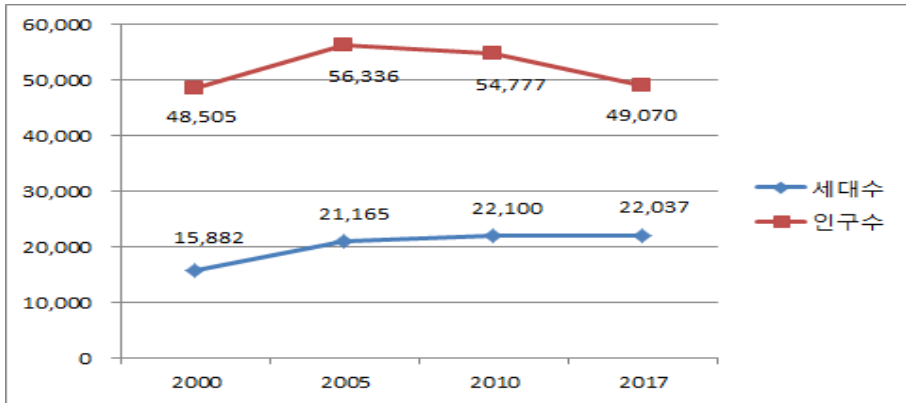


자료: 「서구 통계연보」 각 년도

③ 갈마동

갈마동의 세대수는 2000년 15,882세대에서 2017년 22,037세대로 증가했으며, 인구수도 2000년 48,505명에서 2017년 49,070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갈마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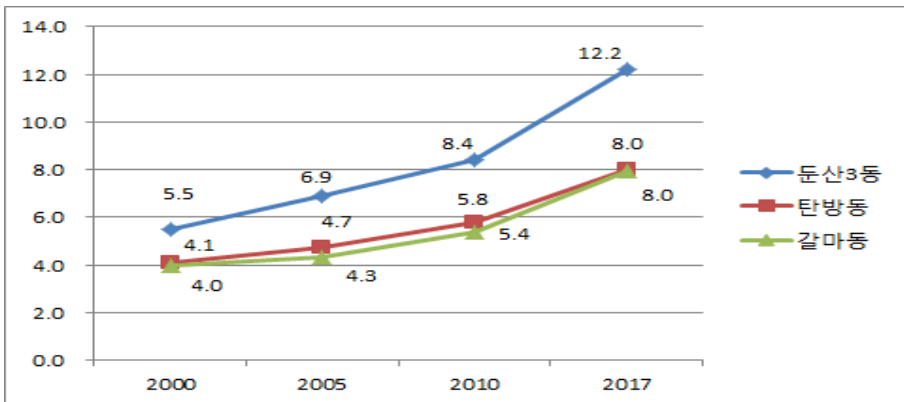


자료: 「서구 통계연보」 각 년도

④ 65세 이상의 인구비율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2000년과 비교해서 2017년 현재 둔산3동, 탄방동, 갈마동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노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은 둔산3동으로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2017년 6.7%p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갈마동(4.0%p), 탄방동(3.9%p)순이다.

[그림 8] 65세 이상 인구비율(둔산3동, 탄방동, 갈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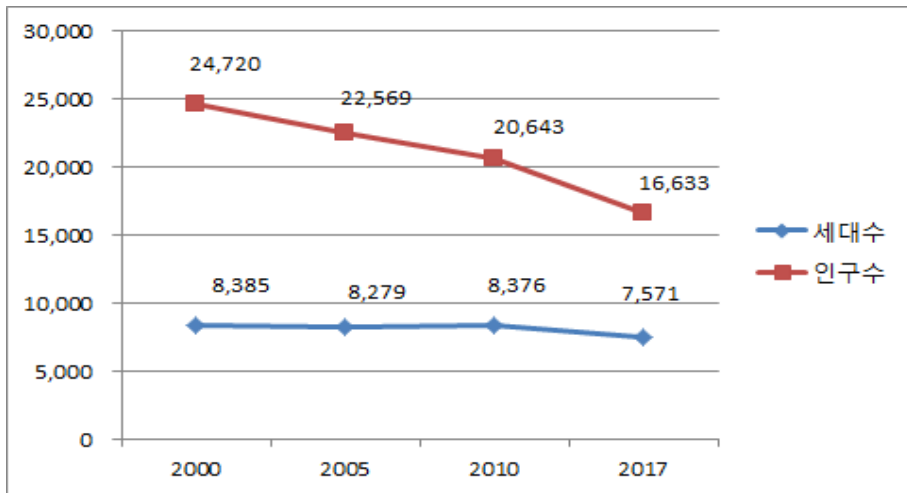
자료: 「서구 통계연보」 각 년도 자료 재구성(단위 :%)

(3)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① 오정동

오정동의 세대수는 2000년 8,385세대에서 2017년 7,571세대로 814세대 감소했으며, 인구수도 2000년 24,720명에서 2017년 16,633명으로 8,08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오정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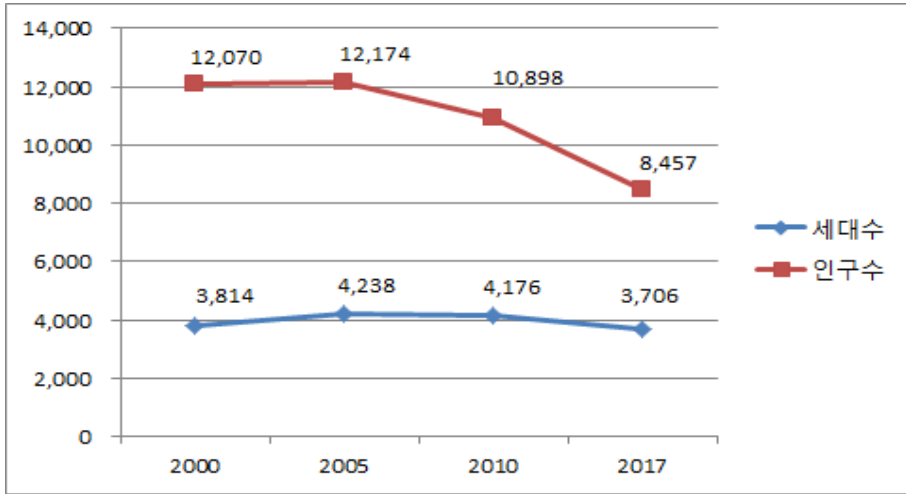


자료: 「대덕구 통계연보」 각 년도

② 대화동

대화동의 세대수는 2000년 3,814세대에서 2017년 3,706세대로 소폭 감소했으며, 반면에 인구수는 2000년 12,070명에서 2017년 8,457명으로 3,61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대화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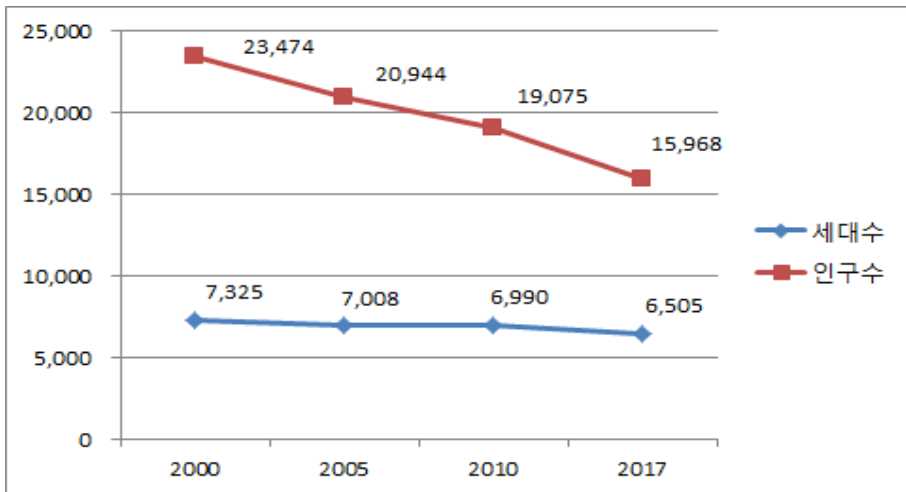


자료: 「대덕구 통계연보」 각 년도

③ 읍내동

회덕동의 세대수는 2000년 7,325세대에서 2017년 6,505세대로 감소했으며, 인구수도 2000년 23,474명에서 2017년 15,968명으로 7,50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회덕동의 세대수와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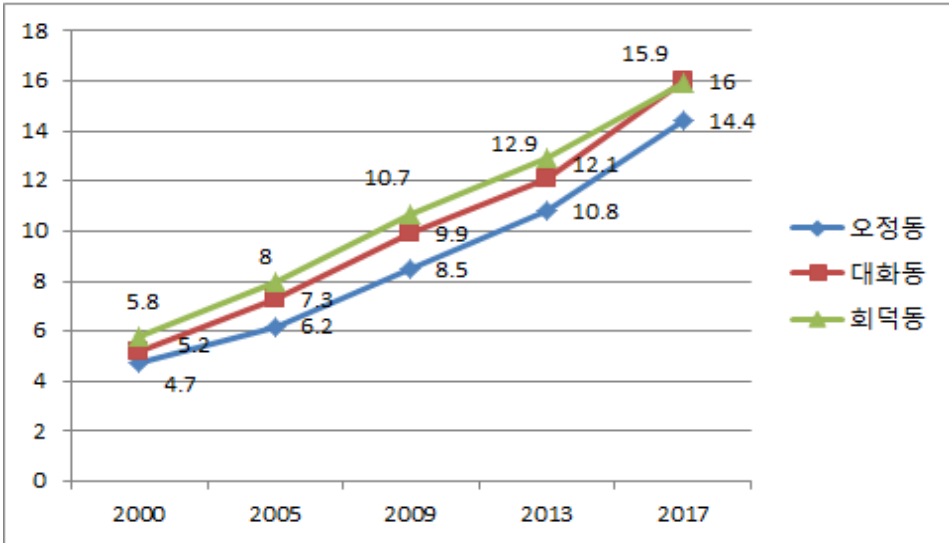


자료: 「대덕구 통계연보」 각 년도

④ 65세 이상의 인구비율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2000년과 비교해서 2017년 현재 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노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화동과 회덕동(16%)이다. 2000년 대비 2017년 노령화 비율은 세 지역 모두 약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자료: 「대덕구 통계연보」 각 년도 재구성

3)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³⁾

(1) 도마동, 정림동, 가수원동

각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도마동은 교육서비스업(24.2%)과 도매 및 소매업(20.9%)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림동은 도매 및 소매업(17.8%)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3%)이

3) 사업체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판매, 서비스 제공 등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말한다(대전광역시 대덕구, 2017, 「2015년 기준 사업체조사」)

다수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운수업(13.5%)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가수원동은 교육서비스업이 24.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업(14.15)의 비중이 높다.

[표 3] 2015년 산업별 종사자(도마동, 정림동, 가수원동) (단위: 명, %)

산업분류(중분류)	도마동	정림동	가수원동
농림어업	0	3(0.1)	2(0)
광업	0	0	0
제조업	417(4.5)	130(3.9)	265(3.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	0	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	1(0)	16(0.2)
건설업	371(4.0)	197(5.9)	764(9.4)
도매 및 소매업	1,934(20.9)	590(17.8)	965(11.9)
운수업	474(5.1)	448(13.5)	499(6.1)
숙박 및 음식업	1,093(11.8)	369(11.1)	1,147(14.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0.2)	6(0.2)	52(0.6)
금융 및 보험업	125(1.4)	31(0.9)	95(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3(2.6)	138(4.2)	389(4.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1(0.3)	26(0.8)	113(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07(4.4)	35(1.1)	720(8.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48(2.7)	18(0.5)	80(1.0)
교육 서비스업	2,238(24.2)	352(10.6)	1,973(24.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23(8.9)	572(17.3)	588(7.2)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173(1.9)	72(2.2)	123(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647(7.0)	325(9.8)	350(4.3)
합계	9,248명(100)	3,313명(100)	8,141명(100)

자료: 대전광역시 서구, 2017, 「2015년 기준 사업체조사」 자료 재구성

(2) 둔산3동, 탄방동, 갈마동

둔산3동의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28.6%)와 숙박 및 음식업(17.75)의 비중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탄방동은 건설업(15.05)와 금융 및 보험업(10.5%)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25)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갈마동은 건설업(14.2%)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6%)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4] 2015년 산업별 종사자(둔산3동, 탄방동, 갈마동) —(단위: 명, %)

산업분류(중분류)	둔산3동	탄방동	갈마동
농림어업	0	153(0.8)	0
광업	0	0	0
제조업	73(2.5)	241(1.2)	182(1.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	13(0.1)	116(1.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	0	13(0.1)
건설업	109(3.8)	3,010(15.0)	1,503(14.2)
도매 및 소매업	825(28.6)	3,237(16.1)	1,530(14.4)
운수업	101(3.5)	423(2.1)	405(3.8)
숙박 및 음식점업	509(17.7)	1,960(9.8)	1,339(12.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0.2)	828(4.1)	395(3.7)
금융 및 보험업	38(1.3)	2,112(10.5)	191(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8(7.2)	846(4.2)	390(3.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0(1.4)	759(3.8)	700(6.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0(2.8)	1,354(6.8)	564(5.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7(0.6)	241(1.2)	253(2.4)
교육 서비스업	397(13.8)	906(4.5)	1,096(10.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21(7.7)	2,040(10.2)	654(6.2)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69(2.4)	265(1.3)	458(4.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90(6.6)	1,661(8.3)	815(7.7)
합계	2,882명(100)	20,049명(100)	10,604명(100)

자료: 대전광역시 서구, 2017, 「2015년 기준 사업체조사」 자료 재구성

(3)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회덕동)

오정동은 도매 및 소매업이 34.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업(10.5%)과 제조업(11.7%)의 비중도 높다. 대화동의 경우에는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50.5%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가장 높다. 회덕동은 운수업(16.6%)과 제조업(14.7%) 그리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4.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2015년 산업별 종사자(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단위: 명, %)

산업분류(중분류)	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농림어업	0	0	0
광업	0	11(0.1)	8(0.1)
제조업	1,739(11.7)	6,540(50.5)	1,193(14.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0.1)	0	1,149(14.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8(0.5)	85(0.7)	53(0.7)
건설업	1,556(10.5)	438(3.4)	363(4.5)
도매 및 소매업	5,079(34.2)	2,079(16.1)	1,315(16.2)
운수업	666(4.5)	778(6.0)	1,350(16.6)
숙박 및 음식점업	773(5.2)	277(2.1)	323(4.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4(0.2)	29(0.2)	75(0.9)
금융 및 보험업	238(1.6)	40(0.3)	53(0.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4(1.0)	78(0.6)	84(1.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09(2.8)	162(1.3)	17(0.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76(3.9)	895(6.9)	804(9.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74(4.5)	35(0.3)	38(0.5)
교육 서비스업	1,885(12.7)	197(1.5)	254(3.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30(2.9)	654(5.1)	381(4.7)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129(0.9)	32(0.2)	42(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64(3.1)	616(4.8)	652(7.7)
합계	14,872명(100)	12,946명(100)	8,127명(100)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7, 「2015년 기준 사업체조사」 자료 재구성

3장

도마동, 정림동, 가수원동 지역민이 느끼는 도시정체성

1. 지역 주민들의 현실 인식과 지역정체성
2. 지역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지역정체성

1. 지역 주민들의 현실 인식과 지역정체성

가수원동과 정림동, 도마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서남부에 위치하는 도농복합지역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도심으로서 베드타운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다. 각 지역은 뚜렷한 특징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특성을 간직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지역은 도시의 성장과 확장에 따른 기능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역할 수행에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었다. 곧 대전의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둔산 신시가지 개발이 그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데에 반해, 이 지역 사람들은 관저지구나 도안, 그리고 세종시의 신도시 개발이 그와 유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젊은 층들의 인구 유출로 인한 침체와 쇠퇴의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1) 지역민들의 현실 인식

도마동과 정림동 주민들의 공통적인 현실 인식은 젊은 층들이 세종이나 도안과 같은 신도시로 빠져 나가고 지역에는 노인들만 남게 되면서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다. 가수원동과 정림동은 60~70년대만 해도 도시의 주변부라기보다는 오히려 도시 외곽의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⁴⁾. 곧 1960년대 초반까지 대덕군의 일부였다가 대전의 시역 확장에 의해 대전시로 편입되었다. 대전시로 편입된 이후에도 정림동과 가수원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도마동은 도시 주변부로서 [원미섬유]와 [대전피혁] 등의 공장들이 가까이 생기게 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던 주택가가 발달한 지역이었다.

4)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해 대덕군의 유천면 전역과 회덕면의 대화, 오정, 용전리, 산내면의 옥계, 삼정, 호동, 가오리가 대전시로 편입되었다.(이창기, 2000).

대덕군 기성면 진잠을 중심으로 하여 가수원과 도안동이 있었고, 유등천 서쪽으로 일종의 야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도솔산을 배후로 도마동과 변동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 도마동의 경우 다양한 형식의 주택이 몰려 있어서 대전시의 배후도시로서 시민들의 주거지역으로 기능하고 있었죠(한00(70세), 전 공무원).

이처럼 도농복합지역으로 기능했던 이 지역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은 다름 아닌 대전 시세의 확장에 따른 대전시로의 편입이었다. 이 지역의 변화를 오랫동안 지켜본 경우에는 그것을 상전벽해에 비유했다. 대전시로 편입된 후 약 20여 년 동안은 이 지역이 충남의 서남부나 호남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주요한 길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교통도 불편했고, 또한 장마나 홍수 등에는 침수지역도 많아서 일상생활이 무척 불편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도마동에서 정림동으로 넘어가는 불티고개라고 있었는데, 거기부터 도로가 막히기 시작하면 버스조차도 꼼짝달짝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부여나 논산, 호남으로 가는 주요한 길목이어서 차들이 한꺼번에 밀리면 일어나는 현상이었지요. ... 가수원초등학교의 경우 장마나 홍수 때면 의례히 운동장 배수 문제로 골치 아팠고, 가수원 사거리에서 도안방면 지역은 침수 문제가 심각했었죠.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어졌잖아요(이00(73세), 전 초등학교 교사).

1970년대 이후 계속되는 대전시의 발달과 외연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인구이동 등에 따라 마을 공동체는 서서히 자연스럽게 와해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도시 개발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자연환경 또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지가의 상승도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각 지역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주변이 개발됨에 따라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한편으로 더욱 외곽으로 밀려나는 원주민도 생기게 되면서 기존의 문화 혹은 사회적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도마동 주민들은 “전통적인 주거지역으로 기능했지만, 도솔산에 막혀 더 이상 서쪽이나 북쪽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막히면서 발전에 한계” (한00(70세), 전 공무원)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70~80년대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경남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이나 선생님, 교수 의사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살기 좋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던 동네” (전00(59세), 자영업)로 기억하고 있었다. 공동체의식의 소산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으로 도솔산 산신제를 꼽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에 대한 인식 또한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매년 정월 대보름에는 도솔산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산신제를 지내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갈수록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져서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랜 전통이라서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형식과 내용을 좀 바꾸면 어떨까 생각도 하지만 아직은 마을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함부로 의견을 내기도 조심스럽지요(김00(57세), 주민자치위원).

도마동의 전통 혹은 자랑거리 하나를 꼽으라면 도솔산 산신제를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해요. 도마동에서는 가장 큰 축제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많이 다르다보니 공동체의식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자랑거리 아닐까요(김00(79세), 주민자치위원).

정림동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산도 좋고 물도 좋은, 또한 공기도 맑아서 살기 좋은 동네이고, 4월에 천변에서 벚꽃축제를 할 때면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일 만큼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일상적으로 생활하기에 어떤 불편함이 없는 곳” (장00(62세), 향우회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정림동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다.

정림동은 공원이나 산책로, 물가, 산, 그리고 시장 등이 가까운 곳이 있고, 편의 시설 등도 많아서 살기 좋은 곳이지만, 젊은 층들이 자꾸만 빠져나가 지금은 동네에 노인들만 남아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 명절 때에는 온 동네가 주차난을 겪을 정도로 부모님이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노인들만 남고 젊은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김00(39세), 정림동 거주, 개인사업).

정림동에 남아 있는 공동체적 속성들은 “본토박이 향우회라고 토박이들의 모임이 있는데, 명절 때 귀성객들이나 불우 이웃들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평시에는 노인정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등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 곳” (김00(39세), 자영업)이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아버지가 본토박이 향우회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본토박이 향우회의 활동조차도 현실적으로는 외양과는 달리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본토박이 향우회가 하는 일은 사회복지관에서 효도잔치를 한다거나 벚꽃축제가 열리면 얼마간 찬조를 하고, 쌀독에 쌀을 채워 넣어 없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본토박이 노인들 효도잔치를 하기도 하는데, 본토박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한번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서 지금은 그저 마을에 사는 노인들은 모두 초청하기도 해요. ... 현재 기금이 한 2000만 원 정도인데, 갈수록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장00(62세), 향우회장).

가수원동 주민들의 경우 “호남지역으로 통하는 관문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나아가 공기도 좋고 말 그대로 물도 맑고 경치도 좋고, 인심도 넉넉한 그런 동네” (장00(58세), 주민자치위원)라거나 “아파트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어서 아이들 교육에도 아주 유용했고, 다른 곳보다 깨끗하고 조용해서 살기 좋은 곳이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 없다” (김00(48세),

주부)는 말처럼 여전히 살기 좋은 편안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수원은 도안 신시가지 조성 후 물가와 집값이 오르고 있고, 도안 원주민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떠나는 사람도 없고, 큰 변화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경로당에서 예절교육이나 한자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아주 좋아요. 도서관이 특히 좋은데, 놀이터 기능도 하고. ...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라서 계속 이런 모습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김00(48세), 주부, 가수원 거주).

현실적인 조건에 만족하면서 노령인구의 증가 등 여타 지역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조차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 부조하는 이런 모습들은 향후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보여준다. 민간의 힘만이 아니라 관의 협력에 의해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서울 성북구의 삼각산 재미난 마을이나 마포구 성미산마을과 비슷한 종합공동체⁵⁾를 형성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와 같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는 약 20여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를 앞당길 수도 있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정림동에서 <수밋들 어울벗>이라는 주부모임이 도서관 자원봉사를 계기로 모임을 시작하여 나중에는 정림동 벽화그리기를 통해 도시공동체로 나아가 기틀을 마련한 점은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대전광역시, 2013).

결국 위의 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과거에 비해 넓어진 도로망이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교통이 편리해진 점, 그리고 산과 물이 가까이 있어서 공기가 맑은 점 등의 유리한 자연환경, 그리고 아직도 이웃 간의

5) 성북구의 재미난마을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의 동네 주민으로 구성된 '재미난 밴드'를 구성하여 공연 연습을 하기도 하고, 초등대안학교인 '재미난학교'를 통해 공동육아를 행하기도 한다. 마포구 성미산 마을은 2개의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성미산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공동주택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2013)

교류가 빈번하고 인심 또한 후한 점 등 사회적 분위기는 여느 곳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대전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현실 인식

대전의 변화와 발전에서 몇 가지 결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덕군의 편입과 대덕연구단지의 조성, 직할시 승격이나 대전 EXPO의 개최, 둔산 개발과 광역시로의 전환 등은 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위의 계기들과 맞물려 도로가 넓어지고, 지가가 상승했으며, 개발의 붐을 타고 이 지역에도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전의 변화 과정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물었을 때 개인의 기억과 실제 사실과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세대에 따라서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나 현재를 인식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40 ~ 50대는 지난 시기 대전의 여러 변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하고 주관적인 편이었는데, 아마도 빠르게 변화하던 시기를 유년기로 보냈기 때문에 그 인식에 한계가 있을뿐더러 과거의 기억 또한 분명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반면에 60 ~ 70대의 경우 과거의 변화 과정을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향후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은 너무 조용한 도시이고, 변화의 폭도 작고, 역동적이지 않아요. 대전 사람들 또한 차분하고, 점잖지만 답답한 면도 있죠. ... 대표 음식이나 명소도 딱히 떠오르는 것은 별로 없어요. 칼국수와 두부두루치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별루예요. ... 교통도시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과학도시는 글썩요. 연구단지 하나 달랑 있다고 과학도시는 아니잖아요. 양반도시라는 말은 어쩐지 시대와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구요(김00(48세), 주부, 가수원 거주).

1979년부터 택시운전을 해오면서 대전의 변화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큰 패착은 둔산지역에 관공서를 집중시킨 것이라고 생각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둔산에 관공서가 몰려 있다보니 한꺼번에 일을 보기가 너무 쉬운 거죠. ... 교통의 중심지로서 사통팔달이라서 좋지만 산업단지가 취약한 것은 커다란 약점이죠. 과학연구단지 특구도 전국적으로 분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걱정입니다(장00(58세), 가수원 거주).

1960년대 말 대전시는 규모도 작고 인구는 고작 30만 명 정도였어요. 물론 그때의 대전은 삼남교통의 중심지로서 물자도 풍부하고 물가 싸고, 공기 좋고,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였지요. ...대전이 시세의 확장과 함께 차근차근 대덕군을 편입하게 되는데, 720년대 말의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이나 93년 엑스포의 개최 등이 대전을 커다랗게 바꿔 놓은 계기였지. 30~4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도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겁니다(한00(70세), 전공무원).

대전의 성장은 대전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대덕군의 편입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덕군은 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다. 이는 ‘전 자본주의 사회가 도시를 시골과 분리시키고 이들 간 모순을 심화시켰다면, 자본주의는 시골을 포함해 사회(국가 나아가 세계) 전체를 도시화하는 과정, 즉 자본의 도시화 과정을 통해 발전하며 모순을 심화시키는 체제’ (최병두, 2017A)였기에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도시 대전의 정체성 혹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었을 때 의외로 특이한 것이 없다거나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 및 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과학도시, 교통도시, 양반도시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과학도시와 교통도시라는 말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심이 좋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점잖고 배타적이지 않다는 말에는 동의하면서도 양반도시라는 데에는 이견을 보이는 사람이 많았다.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학도시라는 말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자체만으로는 무언가 미진한 듯 여타의 개념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소비도시라든지 복합도시 등의 개념이 그 예이다.

대전은 아무래도 과학도시라고 할 수밖에 없죠. 연구원들이 많다보니 지식수준도 높고, 또 박사들이 많다니까 좋고. ...교통도시는 지금도 사통팔달이니까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무얼 할 수 있을까요? ...양반도시는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서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전00(58세), 자영업).

확실히 대전은 과학도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고객층이 과학 관련 종사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연구단지의 존재가 대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런데 현재 대전의 도시 정체성이라고 하면 저는 복합도시 혹은 다양성이라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인구 구성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출신들이 엇비슷하잖아요. 또 대전에 없는 게 거의 없잖아요. 산업단지도 있고, 연구단지도 있고, 행정타운도 있고(이00(53), 자영업).

과학도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먼저 소비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3차 산업 종사자가 많아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가도 싸고, 소비문화는 발달해 있다고 생각해요. ... 스마트 도시 혹은 과학도시로 특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 편이죠. 다만 대전 시민 누구나가 과학도시임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박00(48세), 정림동에서 학원 운영)

위와 같은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대전이 과학도시를 표방하는 것은 단순히 대덕연구단지의 존재와 그에 종사하는 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로부터 파생되어 EXPO를 개최하고, 나아가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일원으로서 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건립 예정지인 점 등은 쉽게 간과하거

나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대전시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대전시 현안에 대한 무관심이 우려할 정도라는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대전 시민들의 인심이나 인품,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것 등을 대전시의 특색으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타 대도시에 비해서 출신지별 인구 구성이 다양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커다란 사회적 갈등 없이 서로 어울려 잘 살아가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나 장마 등의 천재지변으로부터 안전하고, 시민들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한마디로 인심도 좋고. 서울만큼이나 외지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어울려서 원만하게 살아가는 도시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타 지방도시에 비해서 텃세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유 00(73세), 전 초등학교사)

여타 대도시에 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잖고, 진실되고, 잔피를 부리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타지 사람들이 쉽게 정착하는 것을 보면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끼리의 얘기가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만날 때 더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한 00(70세, 전 공무원),

다른 한편으로 대표적인 축제나 노래, 역사 유적이나 음식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그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의 상징적인 문화적 요소들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대전 문화계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이다. 모든 것을 그저 대전시의 텃만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 문화적 요소의 형성과 전승은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할 때 더욱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을 소재로 하는 소설이나 시, 노래 등이 더욱 다양하게 생산되고, 이를 애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때 비로소 대전의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교통의 중심지이자 과학도시라는 말에는 적극 동의하는 편이에요. 다만 문화나 역사적으로 특성이 부재한 것 같아서 아쉽죠. 대표적인 문화행사나 내세울만한 축제 등도 없는 편이고. 양반도시라는 말을 쓰려면 보다 콘텐츠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효문화축제는 좋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가지고 양반도시 운운할 수 있을까요?(김00(57세), 도마동 주부).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는 한때 한밭문화제가 있었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있었지만 저는 자치구 축제의 특성화와 활성화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 대전의 명소로 대전8경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처지고, 계족산 황톳길이나 유성온천이 그나마 명소가 아닐까 해요? 대청댐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고. ... 대표적인 음식은 칼국수와 두부두루치기를 꼽지만 대표라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고, 오히려 숯골냉면이나 구죽의 농주 등이 아닐까요?(한00(70세), 전 공무원).

2. 지역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지역정체성

1) 가수원, 정림, 도마동의 미래에 대한 기대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예견되어 있는 미래는 젊은 층의 유출과 노인층의 유입, 원주민들의 노령화로 생산과 소비의 감소 등에 따라 모든 면에서 정체 내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젊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이나 일자리 등을 이유로 자꾸만 세종이나 도안지구 등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그들을 대신해서 새로 유입해 들어오는 인구는 경제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이나 빈민층이다. 원래부터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 인구가 대부분이어서 마을 전체의 소비력이 떨어지면서, 학원이나 문화시설 등 지역의 편의시설 등이 감소하고 지역 전체의 활기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현실적으로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꼽았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었다.

도마동은 주민들이 온순하고 좋아요. 특히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원주민들이 많아서 이웃과의 소통이랄까 공동체적 속성 등이 비교적 많다고 생각해요. ... 서부교육지청 뒤편 일대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약간의 지역 간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 정작 걱정인 것은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다른 동네로 밀려나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지요(김00(56세), 주민자치위원).

정림동 우성아파트에는 교수와 의사들 다수가 살았었고, 도마동 경남아파트에 교수와 과학자 등 재력가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마초의 경우 무슨 경시대회 등을 했다하면 거의 휩쓸다시피 했었지. ...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일부는 가수원이나 어은동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다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젠 반장감이 없어졌다고 했을 정도였지(유00, 73세, 초등학교 교사).

도마동의 경우 경남아파트가, 정림동의 경우 우성아파트가 한 때는 엘리트층의 주거지로 각광 받으면서 그 후광 효과를 누린 바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집값도 정체되고, 동네 전체가 활력을 잃기 시작했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다시 몰아치고 있는 셈이어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 재개발 과정은 ‘토지 이용의 집약화뿐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전환과 건조 환경을 통한 자본축적을 촉진시키고자 하지만, 동시에 고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의 토지소유와 이용을 박탈하고 이들을 생산 및 생활수단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소외를 심화’ (최병두, 2015B)시키게 되므로, 결국 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인 약자가 그 폐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다. 이는 초중고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대학가조차 이러한 시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시대의 커다란 문제였다. 이는 단순히 학령인구의 감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문제가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학급 수를 통해서 예를 들면 90년대만 해도 도마초등학교가 60개 학급이었고, 가수원초는 2부 수업을 해야 할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았어요. 지금은 유천초, 도마초, 가수원초 할 것 없이 그 때에 비하면 모두 반토막이 나버렸지. 물론 그때는 초등학교 수가 지금보다는 현저히 적었다고는 하지만, 옛날 생각하면 참 변해도 많이 변했고,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지 (이00, 73세, 초등학교 교사).

정림동에서 학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적정한 인구 규모와 그에 따른 학생들이 있고, 적당한 규모의 학원 수 등으로 적당한 경쟁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학원을 유지하기 힘

든 상황이고, ... 심지어 관내에의 어떤 초등학교의 경우 폐교 절차를 위해 올해부터 신입생의 뽑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세종으로 학원을 옮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박00(48세), 학원운영).

요즘 들어 걱정거리는 도마동에서 그나마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배재대 주변조차 최근에는 쇠퇴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알바생들의 경우 중국인을 비롯하여 동남아 등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뜸한 것 같고. ... 말로만 듣던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 거죠(전00(59세), 자영업)

가수원동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도안동 분동에 대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었다. 기존의 드넓은 지역을 포괄하면서 동세(洞勢)를 자랑하고 있다가 관저동 일부의 분동으로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는데, 다시 도안동 일부마저 분동된다면 동세 위축과 더불어 주민들의 상대적 허탈감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다. 도마동의 경우에도 낙후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야 마을이 회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소지역이기주의이기도 하고, 여전히 개발 만능주의에 빠진 기대였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정직한 목소리였다. 다만 무분별한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아니라 ‘주택, 상업업무시설, 문화예술 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나 라이프 스타일, 역사적 자산을 복합’ (이정형, 2007)하는 복합적 도시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져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과거에는 관저동, 도안동, 괴곡동까지 모두 가수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저동은 이미 분동된 지 오래고, 이제 도안동 일부마저 2020년 분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동이 현실화되면 기존의 가수원동이 위축될 것은 볼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분동을 한다면 가수원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또한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장00, 58세, 가수원거주).

낙후한 단독주택을 헐어서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많은 원주민들이 밀려날 처지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재개발을 통해서 도마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김00(79세)).

이 외에도 이 지역 주민들의 경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교통망의 확충과 보완이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충청지역 광역철도망과 트램의 건설로 좀 더 교통망이 발달하면 구봉산 밑자락을 비롯해 장태산과 기성동 등의 개발에 따른 수혜가 이들 지역에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기성동 한우목장을 전북 정읍의 한우촌처럼 개발하여 관광 명소화하고, 이를 연계하여 대둔산, 장태산, 구봉산 일대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노루벌과 도안 호수공원을 연계하여 캠핑장이나 수변공원으로 개발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 또한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가수원역이 거의 폐쇄상태였는데 다행히 가수원역 근처에 새말지구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장00, 60세, 가수원거주 자영업).

충청권 광역철도가 생기고, 2호선 트램이 정림동을 거쳐 도마동, 가수원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동네도 좀 더 발전할 수 있겠지요. 교통편의가 좋아지면 거주조건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광역철도나 트램이 없는 지금도 별다른 불편은 없지만 유성이나 둔산 사람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있거든요(장00(62세), 농업)

이러한 생각은 지금까지의 도시 개발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곧,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도시 개발이 ‘도시의 모습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물들이 대규모 자본의 투자를 요구하는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의 형태로 진

행되고, 도시의 성장과 함께 그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 (이창무, 2005)되는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도시개발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는 개발의 광풍에서 한걸음 떨어져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도모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보다 덜 소유하면서, 단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하기도 하면서, 채소꾸러미 등을 활용한 도시와 농촌의 연결에 힘쓰면서 공유경제 등의 새로운 제도를 통해 도시공동체를 꿈꾸는 생활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박경화, 2015). 더욱이 이러한 생활방식은 지금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실험중이거나 실천중임을 감안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2) 대전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도시정체성

대전의 미래상과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학도시를 언급했고,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이구동성으로 과학도시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고급인력의 존재만으로는 과학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힘들다는 얘기였다.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대규모 산업단지의 유치였다. 3차 산업 곧, 서비스업종이 발달한 도시로 인정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과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및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산단 유치 혹은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대전에 바라는 점은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 과학도시라는 말에 걸맞은 위상과 내용을 갖추었으면 해요. 과학의 도시라는 말을 부각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대전 EXPO 같은 경우도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불과 20년 만에 다 잊혀진 행사가 되고 말잖아요. (김00(48세), 주부, 가수원 거주).

과학단지 활성화를 통해 과학도시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부가 과학단지 관련해서 자꾸 분산정책

을 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대덕연구단지도 있고,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있는데 대전을 과학의 도시로 특성화해야지 광주나 대구 등지로 자꾸 과학관련 시설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해요. 또한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죠(이00(73세), 전 초등학교 교사)

기존의 것 중에서 특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핍의 요소에서 정체성 강화를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목소리였다. 아마도 수원이나 천안, 아산 등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세수 확보 차원이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의 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요구였다.

대전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외곽에 공단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대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4차산업 혁명특별시니 뭐니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연구단지를 활용하든 대기업을 유치하든 대전의 외곽지역으로 산업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전00(58세), 자영업).

대전은 연구단지가 있고, 대학이 많고, 제3청사 같은 행정기관이 많은 행정도시이다 보니 공무원이나 교사, 연구원 등 화이트칼라들의 천국인 것 같아요. 서비스업종이나 생산직종에 종사하는 블루칼라들은 인건비도 박하고, 일자리도 많지 않고 해서 힘들어요. 대기업 유치나 커다란 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일하는 블루칼라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어울려 사는 도시가 되면 좋겠어요(이00(53세), 자영업).

또한 교통도시라는 이점을 활용한 물류단지 조성이나 나무심기와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등을 통한 전원도시로의 탈바꿈을 얘기하기도 했다.

교통요지로서의 이점을 살려서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 이제는 호남으로 가는 열차 같은 경우는 오송역에서 대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호남으로 향하다보니 예전과 위상은 많이 달라졌지만 도로망은 그래도 대전이 사통팔달이잖아요. 그런 특성을 살려서 전문적인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특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이00(73세)).

나무심기 등은 계속해서 아주 특색 있는 전원도시로 거듭나면 좋겠어요. 이팝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서 특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 도마동이나 가수원동의 가로수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대전의 다른 도로도 그와 같이 멋지게 가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유00(73세)).

이번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대전의 현안이나 미래 비전 등에 대해서 의외로 커다란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이번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대전 관련 주요 공약 중의 하나였던 ‘4차산업 혁명특별시’의 내용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고, 따라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문 실정이었다. 현재 4차산업혁명특별시는 비전선포식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으로 대전시가 전방위적으로 역량을 투입하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적잖이 당황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대전의 미래 먹거리까지 제시하면서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의 추진과 응원을 강조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현 정부의 약속과 대전시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적어도 한 명은 만났기 때문이었다.

대덕연구단지, 3청사, 삼군본부 등에서 일하는 고급두뇌집단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대전 아니에요. 이들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라든지 그 밖의 편의제공을 통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해요. ...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면서 이를 보완해야 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산업 혁명특별시’ 또한 적극 추진하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두뇌산업’ 이야말로 대전의 먹거리라고 생각해요(한00(70세), 전 공무원)

사실 과학도시를 말하고,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말하기는 하지만 서울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도시가 지금처럼 존재한 이상 그 모든 것은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다. 금융과 경제, 정치와 언론 등 그 모든 것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학이나 4차산업혁명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을 모아 과학 혹은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4장

둔산3동, 탄방동, 갈마동 지역민이 느끼는 도시정체성

1. 거주민들의 기억과 현재의 생활
2. 대전의 도시 정체성에 대한 인식

1. 거주민들의 기억과 현재의 생활

둔산3동과 탄방동, 갈마동은 모두 1990년대 둔산권 개발과 함께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당시 도시 계획에 의한 구획 정리, 도로 정비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개발과 맞물려 지금의 형태를 간직하게 되었으며, 도시 개발에 대한 비슷한 기억을 공유하였다. 그로부터 20 여 년이 지난 지금 각각의 상황에 처한 채, 현재를 살고 있다.

1) 아파트 단지와 자영업자들이 공존을 모색하는 둔산3동

원래 둔산3동의 명칭은 삼천동이었다.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삼천동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같은 둔산권이지만 둔산 1동과 2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던 거주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2009년에 둔산3동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아파트 값이 관청 바로 옆에 있는 목련이라던지, 한마루 등등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서 똑같은 평수 예를 들면 크로바하고 여기하고 평수가 똑같은 데도 2,3억씩 거기가 비싸. 어떤 덴 따블이야, 길 하나 사이로. 시민들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유가 있어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학군때문에 삼천초, 문정초.. 다 있잖아. 대전에서 중학교 3개가 대전시 전체에서 1,2,3등 여기서 다해. 학부모들이 언제 오냐하면 중학교 졸업할 때 즈음이거나 초등 졸업할 때 즈음 이사를 와. 올 때 마인드가 둔산이란 이름이야 둔산으로 가야돼 학군은.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삼천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소외되는 거야 아파트 가격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금도 배 차이가 나는데 가나. (70대 석○○ / 약사)

둔산3동이라는 명칭을 바꾼다고 할 때, 둔산3동으로 더 발전이 되고 집값도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협조를 했죠. (바뀌고 나서 좋아진

점은?) 땅값이 오른다고 하기보다도 전체적인 면에서 둔산3동이라고 하면 둔산 하나로 가잖아요. 그냥 그때보다는 좋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미지가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해요. (60대 하○○ / 주부)

그때 당시 지명이 둔산동이 아니고 삼천동이라니까 시골, 옛날 삼천동이 시골스러운 냄새가 나니까 집값이 둔산동보다 저하되는 줄 알고 일부의 사람들이 운동을 했습니다. 집값 오른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승을 해가지고 그때 그걸 바꿨어요. (70대 한○○ / 경로당 회장)

동산에서 처음 분양할 때 둔산 지구라고 그랬거든요. 둔산 지구라는 그것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알아도 둔산이라고 하는데, 삼천동하면 모른다고 해서 그런 게 됐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하자고 해도 그게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걸 받으니까 좋다는 의견으로 다가죠. (60대 노○○ / 소비자단체 활동가)

삼천동보다 둔산동을 선호했지. 옛날 같으면 삼천리 촌놈 그랬단 말이야. (서운하진 않으신지?) 안 서운해. 모르는 소리야. 시내에서 어디 사냐? 할 때 둔산동 산다하면 어이구 괜찮은데 사네 이렇게 나오지, 삼천동이라고 하면 옛날 그 삼천동 그 촌에 살아? 이런.. 위축감이 있었지. (70대 강○○ / 경로당 회장)

둔산3동 거주민들은 대부분 삼천동에서 둔산3동으로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거주민들은 대부분 아파트 분양 당시에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 삼천동, 그리고 삼천리 시절부터 살았던 원주민과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원주민은 많지 않다. 따라서 옛날부터 살았던 지명이 경제적 원인에 의해서 변경된다 한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할 사람들은 이미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삼천리가 왜냐면 물이 세 개가 갑천, 유등천, 대전천 3개가 합친다고 해서 삼천이거든. 그런 거에 대한 옛날 역사적인 고증이 있으니까 그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70대 석○○ / 약사)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몇 사람은 있었어요. 반대를, (찬성이) 98%니까 반대도 있었죠. 그건 삼천리라는 지명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원주민들은 사실 개발지역에 보상을 받고서 다른 데로 떠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돼지를 키우는 걸 했다가 다른 데 가서 돼지 키우는 걸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0대 노○○ / 소비자단체 활동가)

둔산3동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파트단지에 사는 거주민들은 주로 둔산 1동과 2동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과 집값, 학군 등의 이유로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둔산3동은 1,2동과는 다른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주택지였다. 주택지에는 대부분 식당 등 자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지는 둔산권 개발과 동시에 진행된 택지 개발의 일환이었다.

이 동네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단독주택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 60평 내지 70평을 주민들한테 줬는데 그것이 집을 지을 때 6:4로 6은 주택으로 4는 상가로 지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 규정을 지키게 만들었는데 그게 왜냐면 주택 지역인데다가 옛날에는 영토를 갖고 있거나 주택을 개발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짓고 시골생활 하다가 영토 다 뺏긴 다음에 할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걸 구제차원에서 한 필씩 주면서 여기다가 점포를 40프로 넣어서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게 하자 해서 그걸 허락해 준거예요. (70대 석○○ / 약사)

둔산권 개발이 진행될 무렵에는, 제일 먼저 생긴 이 지역의 점포들도 제

법 활기를 띠었다고 한다. 그러나 둔산권의 개발이 완료된 후, 즉 대형 상가와 마트, 주차장이 완비된 식당들이 건축된 뒤에, 이 지역의 점포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런 상황 안에서도 건물이 들어서기 전이니까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영업이 잘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근데 개발이 다 끝나고 관가가 다 들어서고 저쪽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그 상가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도 보니까 대형업소도 충분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썰물처럼 싸악 가버렸어.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업소도 영세하지 그런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소자본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던 분들이 반짝하고 가버리니까 아주 어려움에 처했지. (중략) 여기는 완전히 신개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살짝 미개발 지역의 어려운 동네, 그 이상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래 들어가 보면 물론 경쟁력 있는 업체 10프로? 빼고 나머지는 나가고 싶어서 내놔도 안 들어오고 비어있는 업소가 많고 어저지로 건디고 있는 고사 직전 상태 업소들이 대부분이에요. (70대 석○○ / 약사)

사실 둔산 1동이나 2동 같은 데는 상업용지로 해서 건물이 크게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둔산3동에는 그걸 준주거지라고, 주택이 상가도 되고 주거도 되게 지었기 때문에 큰 건물이 없어서, 발전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주택에 있는 거기에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탄방동하고 인접해 있는 그 도로가 8M도로인가, 그런데 그 도로가 쪽 건물을 올려서 어떤 구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크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대형화되어 있잖아요, 식당도 크게, 뭐든지 크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까워해요. (60대 노○○ / 소비자단체 활동가)

처음 개발 당시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지금은 쇠락하여 둔산3동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거주민의 태도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둔산3동이 아파트 단지와 주택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주민도 있지만, 같은 동네라는 생각 때문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 수준이 있으니까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여유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여길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더 좋은 데로 가니까 백화점 가죠. 더 큰 식당을 가죠. 그러니까 걸어서도 가까우니까. 인근 상권이 대형 상권이 있으니까. (70대 석○○ / 약사)

그 사람들은 서민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는 좀 서민이 아닌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개인주택을 갖고 있는 삼천동 같은 데는 생각 자체가 아파트하고는 틀리지. (70대 강○○ / 경로당 회장)

거의 먹는 거는 3동에서 이용을 하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둔산3동에서 팔아주자고 단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상가가 발전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면 보기에 미관상도 그렇고 문 닫아놓고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60대 하○○ / 주부)

가보기는 해요. 내가 살고 있는 동이 장사도 잘 돼서 우리 동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때 주차장도 새로 만들었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장사가 돼야 동네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그리고 동네 걱정을 하는 것도 우리 동네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식사를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죠. 그게 주인의식인가요? (60대 노○○ / 소비자단체 활동가)

이렇게 혼재된 상황 속에서도 주택지의 자영업을 다시 부흥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둔산3동은 옆 단지의 아파트들과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평화로운 거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그 성패 여부를 떠나 거주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술마을을 조성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 재능기부하고 우리는 동네에서 이걸 합심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이 있을 테고. (중략) 재작년에 대형행사를 했고 서구 힐링아트 작년에 했고 올해도 텐트 20개 해주셔서 하고. 가을에는 구청에서 돈 1000만원 행사비 줘서 예술인들 협동조합에서 주체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중학교, 초등학교 엄마 아버지들 엄청 오드라고. 팜플렛 만들어서 학교마다 다 쫓더니 그랬더니 엄마아버지 모시고 와서 성황리에 했어요. (70대 석○○ / 약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둔산3동이라고 하면 거기 가면 뭐가 맛있다, 어떤 특징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둔산3동에 대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예술거리를 상인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략) 행사를 한다고 하면 가서. 작년에 할 때도 홍보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하는데 좀 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으면 뭐를 둔산3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60대 하○○ / 주부)

2) 전통과 현재, 도시와 녹지가 조화를 이루는 탄방동

탄방동은 아파트 단지와 원룸 단지, 번화가와 오래된 주택지, 그리고 공원 녹지와 오래된 서원 등 다양한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동네이다. 거주민들의 구성도 다양해서, 아파트 단지의 거주민들과 옛날부터 생활했던 권씨 집성촌 등 원주민, 원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점포의 상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한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생활 속에서 녹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이, 이런 문화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재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자연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니까 지금 한참 세종시라든지, 둔산동처럼 집값 안 높고 그런 거 못 따라가지만은 문화재가 있으니까 우리는 말하지만 조금 양반이랄까 약간 명예를 가지고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발전이 덜 된 건 감수하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굉장히 양반이고 점잖은 집안이라는 평을 받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못한다. 권씨가 그래서 유명한 거여. (80대 권○○ / 전직 공무원)

대체적으로 탄방동에는 남선공원 뒤쪽으로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거의 충청도 사람이라서 양반 기질을 물려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청장년들이 반항 안 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일부 전자타운 쪽은 시끄럽기도 해요, 자기네들끼리 알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100%가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탄방동이 좋다. (중략) 첫째는 여기가 옛날에 공군부대 자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전시도 해놓고 행사도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보라매공원 있어요. 그리고 탄방은 역이 두 개예요. 탄방역이 있고 탄방동, 용문동 네거리에 용문역을 하나 끼고 있죠. 또 남선공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땅이 땅소의 기념탑도 있고. 어르신들도 거기서 운동 많이 해요.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관공서도 다 끼고 있고. 편의 시설도 다 되어있고. (50대 김○○ / 자영업)

탄방동이 처음에는 정말 시골스러웠어요, 지금보다 더 시골스러웠어요. 신도시 분위기의 둔산동에 비해서 탄방동은 완전 시골틱한 그런 동네였는데, 지금은 제가 살고 있어서 그런지 타 동네에 비해서 편안한 동네라고 할까요? 젊은 세대들이 와서 등지를 틀고 뿌리를 내려도 좋을 듯한, 아이들 교육 같은 것도 괜찮을 법한. 그리고 저희 탄방동을 보면 문화적인 것이 참 많아요. 둔산 문화원이 있고 로테오타운에 CGV가 있고 그 옆에 세이백화점2가 있어요, 거기에도 영화관이 있고. 음식, 먹거리 문화가 많이 발달된 곳이 탄방동이에요. 한편으로는 아직

까지는 마당너머로 대화가 가능한 그런 시골틱한 동네도 있고. (50대 장○○ / 사회복지사)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남선공원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진짜 힘든 동네였어요. 용문동하고 저희들이 분동이 됐었고 소외된 동네 느낌도 나고. 많이 발전하지도 못했고. 그래도 지금은 주변 환경이나 은행, 관공서 이런 게 없는 게 없잖아요, 너무나 발전이 많이 되어서 좋아요. 처음 입주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살다보니까 다른 동네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동네, 정도 들었고 주변 교통편도 너무 좋고. 그래서 떠나지를 못 할 것 같아요. (60대 함○○ / 통장)

둔산 지역들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다 뜨내기잖아요, 토박이가 없고. 근데 여기는 오래전부터 사시는 원주민들이 계셨던 곳이고 탄방이라고 하는 지명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탄옹선생이 400년 전에 내려와서 탄방에 사셨잖아요. 본인 호도 탄옹이라고 하셨고. 여기서 학문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 명학소, 민중봉기 탑이 있었다는 것. 한 800년 전에 혁명의 고장이었다. (50대 홍○○ / 공무원)

탄방동은 둔산 지역과는 달리, 기존의 지역이 모두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의 원주민들의 토대 위에 신홍 아파트 단지 거주민들이 조화롭게 생활을 공존하고 있다. 게다가 대전에서 손꼽히는 녹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공간들이 거주민들에게 심리적 여유와 육체적 휴식을 제공하면서 중간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편리한 교통과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전부터 원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원룸촌의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돼요. 물론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다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고 편한 데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어느 위치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지를 보면 다 원룸촌이에요. 원룸촌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인식을 안 하고 버리는 게 좀 안타깝죠. (중략) 원룸촌은 직장인들이 많고 외부인이 많다보니까 동사무소에 와서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4-5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 분들이예요. 직장이 끝나면 동사무소도 문을 닫기 때문에……. (50대 장○○ / 사회복지사)

원투 룸은 한두 달이면. 제가 통계조사를 하다보니까 가정방문을 많이 해요. 그러다보면 원투 룸은 진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장 지원하는 것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안 오려고 하죠,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민방위 같은 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60대 함○○ / 통장)

그 사람들은 탄방동에서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착도 없고 주민들과의 접촉도 거의 없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교통이 편하고 살기가 편해서 왔다가 떠나는 것뿐이라서 우리랑 접촉하고 마찰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중략) 뒤쪽은 밤이 되면 애들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CCTV를 달았는데, CCTV가 있는 데는 좀 많이 조용해졌어요. 대체적으로 술집을 나가는 애들을 젊은 남자애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고. (50대 김○○ / 자영업)

얼핏 들으면, 원룸에 사는 직장인들과 기존의 주민들 사이에 갈등 요소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거주민들은 다시 봉사와 단합을 강조한다. 사실 이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거주민들이 그렇게 말하는 바탕에는 동네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깔려 있다.

이쪽은 교통이 편한 쪽으로 있는 원룸에는 젊은 애들이 많은 반면 남선공원 뒤쪽으로는 연세 높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열악한 환경을 가진 분들이 많습시다, 연세 높은 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집 청소도 해주고 밀반찬도 해드리고. (50대 김○○ / 자영업)

(원룸촌 거주자들) 품어야 되는데,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만날 기회도 없고 집을 숙소처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품어야 되겠죠, 근데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다보니까 힘들다고 볼 수 있죠. (60대 함○○ / 통장)

개발되는데, 의견이 저저한 사람은 전혀 없어. (중략) 보상금 받는다지만 보상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지금은 여기에 탄방동 청년연합회라고 해서 개발되기 전에 살던 주민들의 자녀가 있어. 27년간 지금까지 탄방동 청년연합회를 해가지고 매년 그때에 살던 사람들 자녀들을 초청을 해서 대잔치를 베풀었어요, 청년들이. 그게 근 30년 계속 돼, 얼마 전에도 했어요. (80대 권○○ / 전직 공무원)

탄방동은 단합이 잘 돼요. 동에 13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모여서 나들이를 가요. 그런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모든 행사를 하면서 사람동원이 힘든데, 탄방동은 동원이 잘 돼요. 왜냐면 자기가 속해있는 단체에 책임감이 많아서 그래요. (50대 장○○ / 사회복지사)

항상 자랑해요, 타 동에 가서. ○○동을 예로 들면 대전에서 ○○동이 제일 커요, 인구가 42,000~43,000명 정도 되요. 그런데 우리는 단합대회기도 다툼 없이 더 돈독해져서 오는데, 거기는 버스 한 대 갔는데도 싸움이 나서 아예 그것도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잘난 사람이 많고. 아파트끼리만 소통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동에서 협조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동은 회원들끼리 이루어진 단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서서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탄방동은 13개 단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참 신기할 정도. 다른 동 사람들 하고 모이면 자기네 동을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 탄방동은 거의 없어요. (중략) 나도 죽을 때까지 탄방동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사업도 10년 이상 더 해야 되고 봉사도 끝까지 해야 되고. 좋은 동네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50대 김○○ / 자영업)

이것은 원주민과 중간 이주민 등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결과이다. 조선시대부터 살고 있던 집성촌의 원주민들, 그리고 1990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주해온 주민들을 중심으로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고 있었다. 여기에 2010년대 이후 빠르게 들어서기 시작한 원룸 단지의 직장인들이 가세하여 탄방동을 구성하고 있지만, 기존의 안정감이 변화를 흡수하는 모양새이다.

대체적으로 탄방동에는 남산공원 뒤쪽으로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거의 충청도 사람이라서 양반 기질을 물려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청장년들이 반항 안 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50대 김○○ / 자영업)

3) 전통적인 주택지를 파고드는 원룸의 동네, 갈마동

갈마동은 갈마 1동과 2동으로 나뉜다. 1동은 일반 주택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2동은 2,990세대가 살고 있는 경성 큰마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갈마 1동과 2동의 생활 형태는 매우 다르다.

우선 갈마 2동의 거주민들은 둔산권과 가까워, 둔산권을 생활권으로 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둔산동이 먼저 생기고 갈마동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거죠. 여기가 을 지역이잖아요, 을 지역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아파트가 큰마을 아파트예요. 지을 때 같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둔산1동, 2동, 3동이 처음에는 산이었어요. 그리고 산이면서 군부대 자리를 평지로 밀면서 1동, 2동, 3동 분동 됐다가. 3동이 예전에는 삼천동이었던데요, 그러다가 둔산3동으로 커지면서 삼천동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 입주하고 만년동 입주한 다음에 저희 큰마을이 서구에서 마지막으로 입주했죠. (40대 이○○ / 주부)

이렇게 높은 접근성, 교통의 요지로써 이점들은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이로 인해 거주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을 뿐,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만들 여유는 없었다.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둔산동에도 거의 아파트만 있고 나무들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너무 허허벌판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파트만 너무 많은 느낌. (50대 이○○ / 주부)

이 자리가 중간에 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다른 데는 축제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우리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중략) 그런 공원이 갈마동에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공원이 없으니까 안타깝죠. 1동만 해도 공무원 아파트 맞은편에 도솔산이 있어서 참 좋은데, 저희는 내륙지방 도시 중 중간에 낀, 좋은 쪽으로는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죠. (40대 이○○ / 주부)

답답했죠. 왜냐면 빌라가 쪽 있으니까. 저희 집은 사이의 주택이고. 그러니까 좀 답답했고. ○○동 살았을 때는 같은 주택에 살았어도 주택이 쪽 있는 데서 살았다가, (지금) 빌라가 쪽 있는 주택에서 사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그래요. (50대 김○○/ 비영리단체 활동가)

갈마 1동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주택지 안에 교통의 용이성 때문에 일찍부터 원룸 단지가 들어섰다. 이로 인해 꽤 오랜 시간동안 서서히 기존의 동네 구성이 바뀔 정도의 변화를 겪었다.

(처음 왔을 땐) 시골동네 같았어요. 근데 좋은 집들은 좀 있었어요. 여기 둔산이 재개발 되면서 보상받은 사람들이 와서 지었다고 하는데, 저택 같은 주택들은 눈에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자꾸 사라지면서 원룸이 생겼어요. 근데 일찍 지은 원룸들은 비어있는 상태가 많

아요. 좀 흉물스러워요, 그쪽 위에는. (50대 오○○ / 주부)

정말로 주택이 아닌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같은 이웃이지만. 저희도 앞에 다세대가 크게 하나 있고 저희 집 옆에 주택, 거기 다세대 주택 안에 주택이 5채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저기에 합류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남편도 여기에서 거의 낳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40대 임○○ / 주부)

원룸의 증가는 기존 마을의 형태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기존 거주민들에게는 갈등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10년 전 인가요, 인터넷에 갈마동을 검색하면 가장 살기 좋은 동네 하면 갈마동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뒤에 산이 있고 또 그때만 해도 원투 룸이 많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라도 했는데, 지금은 원투 룸이 생기면서 문제는 주차 문제, 그리고 쓰레기. 이게 혼자 살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얀 봉지나 검정 비닐봉지에다가 그냥 내놓는 거예요, 몰래.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떤 한 지역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주차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건물 지을 때 주차 몇 대 해놓은 게 있어도, 요즘에는 5-6세대가 아니잖아요. 보통 10세대 이상이 되니까. (40대 임○○ / 주부)

사람이 많아지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쓰레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정이 메말라졌어요. 옛날에는 이웃집에 수저가 몇 개고 무슨 일이 있는 지를 다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원투 룸이 생겼기 때문에 문을 서로 안 열어주잖아요. 누가 이사를 왔는지, 누가 이사를 가는지. 그리고 돌아가셨어도 왕래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돌아가셨다고 하면 동네사람들이 다 가서 일을 해줬고, 그런 정이 지금은 없잖아요. 옛날 정이 그렇죠. (60대 황○○ / 주부)

하지만, 한 때 이 지역 원룸 거주자였던 한 시민은 원주민들의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도 대다수의 원룸 거주민들은 원주민의 우려나 걱정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 여러 사정 때문에 갈마동에 원룸을 얻었거든요. 아기 낳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정신없이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바빴던 때라, 솔직히 동네가 어땠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어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살던 곳도 기억이 잘 안나요. (30대 김○○ / 주부)

갈마 1동에는 일찍부터 원룸 건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원룸이 지어지고 있다. 옛날부터 있었던 원룸은 건물이 오래되면서 공실이 늘어나거나, 저소득 노인층의 거주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쓸쓸한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빈 건물이 너무 많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중략) 갈마 1동하고 2동만 봐도 벌써. 갈마 2동은 신세대들이 사는 것 같고 갈마 1동은 노인들이 사는 도시 같은 느낌. 실제로 그래요. (50대 오○○ / 주부)

지금 갈마 1동 경로당에 가보시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예요. 지금 그 분들은 여기서 40-50년, 거의 80-9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70세만 되도 별로 안 가세요. 가면 심부름 한다고 해야 되나. (40대 임○○ / 주부)

제가 가끔 경로당을 가요. 거기를 가보면 어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중략) 아무래도 여기가 원투 룸이 많고 건물이 오래 돼서 원투 룸 가격이 싼 것 같아요. 어른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어디서 오셨냐고 물으면서 왜 여기로 오셨냐고 물으면 집값이 싸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여기가 좋다고 친구가 소개해줬다는 분도 계시는데, 집값이 싸서 오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60대

황○○ / 주부)

주거비용이 낮아지면서 다시 저소득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나 청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제가 작은 애가 중1이거든요. 초등학교에서 갈마중학교를 가다보니까. 예전에는 ○○중학교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학년에 거의 한 반 수준이에요. (40대 임○○ / 주부)

저희 애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이 7-8반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반 밖에 없대요. 우리가 젊을 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같은 세대가 그대로 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갈마동이 제가 여기에서 정 붙이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젊을 때부터 같이 늙어가는 느낌이에요. (중략) 젊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건 별로 못 봐요. 젊은 사람들은 원룸에나 있겠죠. 그럼 아침에 나가고,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니까 볼 수가 없고. (50대 오○○ / 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한 갈마 1동 거주민들은 동네에 대한 애착이 많았다. 이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에 대한 애정은 살아온 세월과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그 장소에서 자신이 존재했던 추억과 비례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는 제 2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여기서 오래 살았잖아요. 신혼 때 이사를 7번이나 다녔는데, 주위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기 와서 봉사하면서 주위사람들 하고 하나하나 넓혀가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대 오○○ / 주부)

사실적으로 이 동네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고 해도 경제적인 것들이

허락을 해야 가고 싶을 때 이사를 가는 거지. 그래서 특별하게 이 동네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아직까지는 갈마동이 사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중략)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산이 있고, 또 제가 사는 범위 안에 초·중·고가 다 있으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좋고. (40대 임○○ / 주부)

우선 살기가 좋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 갈마동을 떠나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일, 주민들과 사는 모습이 좋아요. 저희가 처음에 시집와서 부녀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어머니들이 거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받았어요. 받아서 동네 누구네 집이 어렵다고 하면, 매월 20일 저녁 8시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 소식이 들어와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지금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는 서로 통해요, 열쇠를 어디에 두면 2-명이 알아요. 그리고 안 보이면 전화하고 또 안 보이면 찾아가서 보고, 그런 게 좋아요. 그 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중략) 너무 좋은 건 아까도 말했듯이 이웃의 정, 내가 사는 주변에는 그런 게 좋고. 조금 아쉬운 점은…….글쎄요, 저는 못 느껴봤는데. 모든 게 좋으니까. (60대 황○○ / 주부)

2. 대전의 도시 정체성에 대한 인식

대전을 상징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심층면접대상자에게 각각 과학도시, 양반도시, 교통도시라는 명칭을 설명하면서,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모두 달랐으나, 대체로 과학도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다.

1) 대전은 ‘과학도시’ 이다.

시민들은 대전하면 떠오르는 말로 ‘과학도시’를 꼽았다. 아마도 그것은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실제 목격하면서, 대전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대전이라는 도시가 대덕연구단지 조성 이전에는 개발다운 개발, 변화다운 변화가 없었다는 뜻과도 통한다. 게다가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되던 1970년대는 소위 ‘개발시대’로, 여기에 ‘과학’과 ‘연구’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소가 여기 많이 있잖아요. 과학도시가 맞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더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 라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연구단지에 기업들 연구소가 많아요. 다 큰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도시라고 하면 자부심도 있어요. 다른 지역 가서 얘기하면 우리 대전은 과학도시라면서, 연구원들이 많다고 자랑할 수 마음도 있긴 한데,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길을 모르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60대 노○○ / 소비자단체 활동가)

대전이 과학도시다, 연구단지 쪽으로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맞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엑스포 같은 자리가 다른 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좀 더 과학적인 걸로 하면. 신동인가 그런 데도 전부 다 과학단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더 크게 돼서 대전에 상징적인 그런 게 크게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60대 하○○ / 주부)

대전의 발전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연구단지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뭐를 짓는지 모르게 창문을 다 가렸대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소라든가 이런 게 구글에서도 검색이 잘 안 되거든요. 국가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딱 일할 장소에만 차를 내려줘 가지고 눈을 가리고 갔다는 얘기도 들었고. 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연구단지로 가서 노동을 하고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70년대 중반에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별칭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죠. (50대 홍○○ / 공무원)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적인 면에서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명칭을 받아들이고, 또 그 바탕이 된 대덕연구단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도시라는 것, 대덕연구단지라는 곳이 실생활에서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으니, 어떤 게 맞다 라기 보다 계속 들어 왔던 것 때문에 그냥 과학도시. 저 연구단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연구단지가 있다고 해서 갈마동이 어떤 혜택을 본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대전 발전을 위한 과학도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긴 하겠죠. (40대 임○○ / 주부)

과학도시인데 그게 시민하고 믹스가 안 되잖아요. (그게 느껴지시나요?) 네. 대덕에서 따로. 따로 있고 그래서 아파트나 주거지도 다 그쪽에 있잖아요. 이쪽은 몇 사람 안 남아있어. 인구는 많다고 하는데 그쪽하고 별개처럼 따로 걷도는 것처럼.. 과학도시가 더 발전되어가지고 도시발전에 기여를 했음 좋겠어요. (70대 석○○ / 약사)

글쎄요, 과학도시는 맞는데요. 과학이 밀접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쪽으로 종사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

단지 쪽을 지나가다보면 여기가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고, 어느 지역보다 대전이 연구원들이 제일 밀집해 있는 데잖아요. 과학도시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엑스포 이후로는 썰렁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죠. (50대 장○○ / 사회복지사)

대전은 연구단지가 대표적으로 있는 거지, 특별하게는 뭐. 솔직한 얘기로 대전하면은 음식 하나 대표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구단지 하나로써 과학도시 느낌 정도로 연맥을 유지하는 거지, 특별하게는 뭐. 내로라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 연구단지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밀집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죠, 없죠. 거의 없어요. 우리도 그냥 동의하는 거지,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눴니까, 아니면 같이 생활을 합니까. 전혀 없잖아요. (50대 김○○ / 자영업)

한편,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것에 동의하는 시민들도 대덕연구단지 등 과학시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인근에 세종시가 생기면서, 과학도시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아예 과학도시의 기능이 이전되지 않을까, 혹은 예전에 비해 정체되고 결국 쇠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참 어려운 게 과학도시하면 대전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과학벨트 얘기를 하시면서 행정수도를 막으려고 하셨는데 결국 과학벨트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전국에다 다 쪼개 쫓았어요. 그 다음에 연구단지 각 분원을 전국에 찢어놔서 연구단지가 상당히 위축되고 그런 상태예요. (50대 홍○○ / 공무원)

저는 과학도시도 특별히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과학도시라고 해 봐야 테크노밸리 그쪽인데, 지금 다 죽었잖아요. 엑스포 끝나고 다 죽어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대전만의 독특한 게 없어요. (50대 김○○ / 비영리단체 활동가)

과학의 도시죠.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다면 대기
업 같은 경우는 월급이 뽕뽕하잖아요, 대전에 있는 연구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작았을 때 서운함도 있고. 많이
줘서 인력들이 안 빠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그런데 세종시
가 생기면서 그쪽도 과학의 도시로 만들려는 것을 보면 대전을 쪼개는
것 같아서 세종시로부터 손해를 보는 느낌이죠, 빼기는 느낌이 있으니
까 안타깝긴 한데. 과학의 도시는 맞는 것 같고요. 엑스포 쪽이 더 발
전돼서 더 좋은 센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40대 이○○ / 주부)

대덕연구단지나 과학도시라는 명칭이 정작 도시민의 생활 속에서 현실적
으로 만나는 경우는 드문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과
학도시라는 브랜드에 동의하는 것은 그것이 도시의 품격을 살려준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상을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엑스포공원에 대한 개발 등이 지연
되면서, 그리고 인근에 세종시 등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과학도시라는 이
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2) 대전은 ‘양반도시’ 이다.

대전의 별칭으로 양반도시를 꼽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충청도가 고향인
사람들의 기질을 예로 들었다. 그것은 예의를 중시하고, 행동이 느리거나
신중한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관습적으로 충청도 사람들의 행동적 특질을
인정하는 인식 하에 동의한 것이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거의 충청도 사람이라서 양반 기질을 물려받아
서 그랬던 것 같아요. (50대 김○○ / 자영업)

양반도시는 양반도시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충청도하면 양반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부모님 공경 잘 하고 선호사상들이 잘

되어 있지 않나. (50대 장○○ / 사회복지사)

느리다고 해도 자기 할일은 다 하던데요. 느린 게 아니죠. 느리다고 다른 도시에서 얘기할지는 몰라도 우리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다 자기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 중에는 말썽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보다 착한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중략) 약삭빠른 것보다는 낮지 않을까요? (60대 황○○ / 주부)

하지만 대전이 더 이상 양반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지금은 타 시·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왔기 때문에 옛날 토박이들이 살 때처럼 ‘양반도시’라는 전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보인다.

양반도시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타 도시보다 비교적로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60대 함○○ / 통장)

그건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현재까지 나고 자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못 느끼겠어요. (40대 임○○ / 주부)

대전 토박이들은 얼마 없어. 전부 다 외지사람들이 많지. (중략) 타도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이야 거의 3분의 2는 타도사람들이야 대전에. (70대 강○○ / 전직 공무원)

아니요, 저는 대전을 양반도시라고 안 봐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살았던) 청주는 그래도 온순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정했고. 그런데 대전에 딱 왔을 때는 여러 사람이 섞였다는 느낌이 들어요. 웅골지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고향이 어디라고 물어보면 어디, 어디, 어디라고 하고. 다 섞인 거예요. (50대 김○○ / 비영리단체 활동가)

그러나 도시의 정체성은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보다는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구성원이 계속 바뀌어도 그 장소의 특성 때문에, 구성원의 성격이 변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이렇게 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전통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서울은 빨리빨리 문화이지만 여기는 느림의 미학인데, 제가 서울 살 때는 각쟁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전에 내려와서 살면서 지금은, 퍼져있는 아줌마, 충청도 아줌마 이렇게 변했어요. 시골 내려오면서 제 마음이 인심도 넉넉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중도시에 와서 살면서 넉넉해지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살 때보다. (50대 장○○ / 사회복지사)

3)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이다.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지도에서 위치하는 대전을 바라본 결과이다. 실제로 거주민들이 매일같이 다른 시·도로 이동할 일은 없기 때문에,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상식적인 의미에서 동의하는 것이다.

맞어, 교통의 도시는 맞아. (중략)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목포, 부산 모든 것이 되고 이제 여기서 많이 갈려나가잖아. 교통의 도시인거는 틀림없어. (70대 강○○ / 전직 공무원)

또 여기가 교통의 요지잖아요, 중간이니까. (60대 황○○ / 주부)

결혼을 해서 천안에서 살면서도 천안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쪽에 주택조합을 하니깐, 대전이 교통도 좋고 하니깐 그냥 대전으로 가자고 해서 이사를 왔는데. (50대 오○○ / 주부)

대전의 좋은 점은 그래도 전국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이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래도 어디가면 뭐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40대 임○○ / 주부)

실질적으로 여기가 발전한 것은 아시는 대로 철도, 공주 양반들이 철도 못 지나가게 하니까 대전 여기 철도역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경부선, 호남선이 분기해서 교통의 중심이 되면서, 1932년도에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오면서 대전 발전이 시작됐다고 보고요. (50대 홍○○ / 공무원)

아울러 교통의 중심지, 교통도시라는 별칭 자체가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대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과학도시) 전에는 교통도시라고 했지. 뭐 특색은 없고 그래서 교통도시 여건이 켈 발달된 도시다. (70대 석○○ / 약사)

그냥 경부선, 호남선이 지나가는 중심이니까 중간에 끼어서 어부지리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정치하는 사람, 잘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50대 김○○ / 자영업)

대전이 과학도시, 양반도시, 교통도시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오랫동안 대전을 수식하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학도시, 양반도시, 교통도시라는 것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와 닿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형상화에 가깝다. 줄곧 그래왔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머릿속의 개념이다.

따라서 대전이라는 곳이 과학도시, 양반도시, 교통도시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콘텐츠의 빈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5장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지역민이 느끼는 도시정체성

1. 도시, 도시정체성의 변동
2. 기억 속 마을과 삶
3. 현재 생활세계에 대한 인식
4. 미래에 대한 기대

1. 도시, 도시정체성의 변동

대전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루어진 철도 부설과 도청 이전을 통해 형성된 근대도시라는 기원적 특성을 갖는다. 이후에는 6.25전쟁, 1960년대 말부터 진행된 산업화 과정과 대덕연구단지 조성, 그리고 정부 제3청사 입주 등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의 성장이 진행된 인구 특성을 갖는다. 이와 함께, 영남권과 호남권으로 분기되는 철도와 고속도로망의 입지는 대전을 교통의 요지로 인식되게 한다. 이러한 인구 형성의 특성과 이동의 용이성은 도시의 유동성 증가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전통적인 역사와 현대성의 접맥이 용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떠나가는 나그네 도시”로 대전의 도시이미지가 규정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김민수, 2009).

특정 장소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많은 경우 장소의 이미지가 곧 정체성이 된다. 이 때 이미지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수직적 구조는 개인적, 집단적 경험의 강도와 깊이의 구조이고 다양한 수준의 외부성과 내부성의 경험에 대응되는 층위들로 구성된다. 수평적 구조는 개인, 집단, 대중의 내부와 그들 상호간 장소에 대한 지식의 사회적 분포에 관한 것이다(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옮김, 2005:128-129). 이로써 도시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성’된 생활세계의 공간으로, 각 도시의 공간은 특정한 삶의 환경과 사회관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도시현상은 단순히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단면이 된다(김왕배, 2000:18-19). 구체적으로 도시는 이따금 현재에도 나타나는 문화적 전통과 가치의 저장소로서 과거 기억들의 창고가 되어 신화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김왕배, 2000:53). 또한 도시의 문화는 문화유적과 같은 유명한 장소뿐 아니라 지하철, 공원, 쇼핑센터 등과 같은 도시생활의 틈새들에도 기반을 둔다. 도시는 개인적 경험과 문화적 표현이 공유되는 영역으로 순수하게 지적인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상이나 꿈의 과정, 즉 신화를 통해 파악되기도 한다(김왕배, 2000:53). 이와 같이, 도시정체성은 개인, 집단, 장소, 그리고 환경 사이의 상징적 상호작용이 공동체의 가치, 신

념, 그리고 상징적 의미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의 물리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도시정체성도 변화하는 유동성을 나타낸다(한상헌 외, 2016: 16).

도시의 성장주기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물리적 사회적 변화와 도시정체성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후버(Hoover)와 버논(Vernon)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연령은 주택의 유형과 상태, 주민의 사회계층, 거처의 밀도, 주민의 출신지 등과 관련을 갖고, 최초로 건설된 이후 시간의 양에 따라 젊은, 중년, 늙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 주기에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50년보다는 길고 100년보다는 짧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과정은 농촌을 첫째 단계로 하여 단독주택의 개발, 완전 점유, 하강, 줄어듦의 과정을 거쳐 재개발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박홍식, 2001: 40-41).

이러한 도시의 성장주기에 관해 국내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수도권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후버와 버논이 예측한 주기보다 짧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성장한 도시의 경우 최소 20년에서 최대 40년 이내에 도시의 성장주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인위적 도시성장의 경우 개발이 단기간 완료되면 자연발생적 성장과 유사하지만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면 최소 50년 이상의 성장주기를 보였다(임영진, 2016: 108).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도시계획이 압축성장해 온 산업발전 과정과도 연관을 갖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도시의 쇠퇴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중 신도시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인한 인구와 고용의 분산, 주택 수준의 저하, 교육 및 공공서비스 공급 부족 등을 들 수 있다(박홍식, 2001: 44-45). 이러한 경제, 구조적 요인과 함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역사성과 정체성의 결여도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박홍식, 2001: 54).

읍내동, 대화동, 그리고 오정동은 이러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전 내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형성기를 거친 대전 1, 2 산업단지(이하 대화동 공단)를 중심으로 전

통적인 농촌공동체에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주거기능이 형성되고 199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거친 후 쇠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정동의 경우 읍내동과 대화동에 비해 약간 늦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형성기를 거친 후 빠른 기간 내에 높은 인구의 밀집을 나타내며 성장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심 내 학교의 학생 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와 함께 공동체의 쇠퇴현상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절에서는 이들 읍내동, 대화동, 오정동이 거친 도시화과정에서 변화된 정체성에 관해 개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동별로 5-6명(총 1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30년 이상이었고, 연령은 40대에서 70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기억 속 마을과 삶

1) 전형적인 농촌

읍내동, 대화동, 오정동은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공통점이 많은 지역이다. 무엇보다 이 세 지역은 논, 밭, 산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적인 농촌지역에서 출발해서 산업화에 따르는 도시의 성장기를 거쳐 이제는 재개발을 기다리는 성장과정의 유사성을 갖는다.

대화동과 오정동은 1963년부터 대화리가 오정동으로 편입되면서 하나의 행정구역을 이루다가 1983년에 다시 분리되었다(대덕구청 홈페이지). 두 지역 모두 20가구 미만의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농촌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산업화와 개발붐을 타고 외지인들이 다수 유입되면서 도시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대화동은 대전에 편입되기 전에 구만리와 안구만리를 중심으로 농사를 짓던 원주민들이 드문드문 살던 곳이었지만, 1970년대 초부터 공단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취업을 위해 몰려 온 외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축 건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흥동과 같은 기존의 대전 시내에 비해 집값이 싼기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지금도 대화동보다 대화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예전에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대화동을 대화리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대화리 날맹이었죠. 지금 대전병원이 서 있는 자리가. 그 길도 되게 산길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려면 그 때는 4차선도로가 막 생기면서 공사 중이라 흙길을 내려가서 오정동 화정초등학교까지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한발대로 나가는 오정동 4거리 길이 비포장이었고 거기에 넷가가 흘렀어요. (중략) 그게 지금 갑천이랑 만났을 거예요. 그 넷가 위 다리를 건너며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학교 끝나면 밑에 개울가에서 울챙이, 개구리, 거머리 잡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오정동,

대화동이 변두리였어요. 대전 시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골이었어요.(이00, 남, 40대)

오정동은 1987년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조성과 신동아아파트가 건축되기 전까지 논과 밭, 미나리밭과 양어장 등이 있었고 20여 가구가 농사를 지으며 살던 변두리 지역이었다. 심지어 1970년대 후반까지도 버스기사가 대화동 공단이 있는 대화리는 알았어도 오정리는 알지 못할 정도였다(박00, 여, 70대). 이곳의 경제구조는 농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몇몇 가구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일종의 계약농업에 종사했던 독특한 형태였다. 오정동에서 태어나 70여 년 동안 살아온 황00도 계약농업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동네가 다 들판이었어요. 들판이었는데, 없다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면 고지⁶⁾하면서 농사를 다 해주고 했어요. (중략) 큰 황소 한 마리로 이 동네 농사 다 지었어. (중략) 남의 농사니까, 한 마지기 농사지으면 쌀 한 말이나 주면 먹고, 그것도 겨울에 미리 갖다 먹고 없으면 또 남 보리밭에 독새풀 뜯어다 볶아 먹고 (중략) 부자들 몇 몇이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요. 고생한 거 생각하면 말도 못해요.(황00, 남, 70대)

고지는 한 해 농사의 대가로 소출의 일정량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

6) 고지는 계약농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농촌 내의 계급분화와 농민의 빈궁화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조선 말기에도 행해졌다. 주로 논농사에서 행해졌고, 밭농사에서는 드물게 행해졌다. 일제시대에는 논농사를 많이 하는 전북·전남·충남·충북·경기 지방에서 성행했고, 소작경영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고지는 일정 면적에 대해 미리 임금을 받고 작업을 해주기로 계약을 맺는데, 작업의 성격상 개인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조직화로 나타났다. 개인이 계약을 맺는 경우(개인고지)에도 작업은 품앗이나 집단으로 했으며, 그에 따라 단체로 하는 방식의 단체고지가 나타났다. 고지를 주는 사람, 즉 고지주인은 경작면적이 넓어 가족노동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노동력을 동원하기 어려운 농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농가나 광농들이었다. 고지를 먹는 사람, 즉 고지꾼은 빈농 및 농업노동자들이었다. 고지꾼을 대표하여 고지주인과 계약하는 고지두목이 있고, 고지꾼은 보통 2-3명 내지 7-8명이 단체로 계약을 맺어 공동작업을 했다.” <다음백과(2017.6.28.)>

약형태로 임금이나 쌀 등을 받고 농사를 지어주는 형태였다. 주로 논농사를 많이 지었던 호남, 경기, 충청도 지역에서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에 행해지던 방식이었는데 1960-70년대까지도 오정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업형태로부터 신분에 의한 구분보다는 재산의 소유와 규모에 따르는 계급관계가 마을공동체에 작동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일대(현재의 송촌동을 포함하여)에 특정 일가를 중심으로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신분제적 질서가 낮은 수준에서라도 작동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마을에서 부유한 몇몇 가구에서 머슴을 두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은 오정동의 황OO뿐만 아니라 읍내동 천OO의 기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두리 농촌의 특성은 회덕현 동헌과 회덕향교가 있던 오랜 역사를 가진 읍내동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23세에 유성에서 읍내동으로 시집을 온 후 50년 넘게 살고 있다는 천OO은 기억 속 읍내동 당아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당아래로 시집을 왔는데 시집오니까 여섯 집 살았거든요. 한 식구 마냥 살았지, 니 것 내 것도 없어요. 채소 같은 것 기르면 다 나눠 먹었지. 팔 줄도 몰랐어. 우물 하나에다 그 우물 퍼다 먹고 살았으니까. (중략) 전기도 안 들어왔는데 이쪽은 읍내동이라고 도시 같이 불이 들어왔고 우리 사는 데는 몇 집 안 돼서 불도 수도도 없었어요. 우리는 초롱불 살다가 우리 아버님이 유지로 살았기 땀에 불을 끌었지, 수도도 끌고.(천OO. 여, 70대)

읍내동은 대덕군에 속해 있다가 대전의 도시팽창에 따라 1983년에 대전시로 편입되었지만 향교를 비롯한 유교적 전통과 가문을 이겨내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던 마을신앙이 공존하던 지역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마을신앙의 재현은 자랑거리가 되기 한다.

이 동네는 특히 뭐가 있나하면, 계족산 무제라고 지내는 게 있어요.

아실걸? 제죽산 무제라면? 무제를 지내면 비가 내린다고 해서. 근데 꼭 대기에 묘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명당자리래요. 옛날에는 비가 안 오고 가물어서 올라가보면 묘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묘를 온 동네사람들이 가서 다 파 집어내서 제를 지내면 비가 내린다고. (중략) 몇 년 전에 무제 축제에도 나가서 3등 먹었는데.(천00, 여, 70대)

2) 도시의 성장과 삶의 변화

이렇게 소규모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농촌은 산업화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정부는 1962년 울산석유화학 공업지역과 1964년 서울 구로의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에 이어 1960년대 말부터 공업의 지방분산과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인천, 청주, 구미를 비롯한 지방도시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고 대화동 공단도 그 일환으로 조성되었다(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 1987: 31). 대화동 공단 1969년-1970년과 1975년-1979년 두 차례에 걸쳐 1, 2공단으로 나누어 조성되었고, 당시까지 유등천변과 대전천, 대동천변 등에 흩어져 있던 섬유 및 피혁공장과 서울 등 다른 도시에 있던 공장들이 입주했다. 1987년을 기준으로 업체수와 고용 노동자 수에 있어서 화학과 금속, 기계공업이 중심을 이루었고 태평양화학이나 동양강철 등이 당시부터 입주를 한 대표적인 기업이다(충남민주운동연합, 1987: 34-36).

정부 정책에 의해 조성된 대화동 공단은 이 지역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영향은 무엇보다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삶의 변화였다. 농업에 의존하던 동네경제는 상업과 주택임대사업이 등장하면서 도시화되기 시작했다.

없는 사람들은 보탬이 많이 됐지. 공단 들어오고 처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고, 돈 나온 것 가지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고. 없는 사람들은 벌어먹고 살기 좋으니까 잘 됐고. (중략) 나는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중략) 그러다가 공단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스투트 집을 지어서 한 칸 한 칸 지어서 세를 냈

어요. 세 받아서 먹고 살았지. 또 동네 어른들한테 가서 보증 좀 서달라고 해서 집을 지었어요. 세를 놓으려고. 몇 년 끄니까 다 갚았죠. 또 공단으로 일하러 다니고. 그렇게 애들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랬어요. (천00, 여, 70대)

그렇게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던 읍내동에는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스투트 지분을 올린 단칸방이었던 이른바 말집을 지어서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화동 공단이 조성되는 초기에는 대화동보다 읍내동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아서 집이 좋고 나쁘고를 따질 틈도 없이 방만 있으면 서로 들어가려고 할 정도로 임대업이 잘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단의 노동자들은 퇴근 후 읍내동으로 와서 회식을 하곤 하면서 동네에 활기가 넘치고 좋았다고 한다(김00, 남, 60대). 인근의 옥천에서 돈을 벌기 위해 대화동 공단으로 온 후 결혼을 하고 40년 이상을 살아온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당시 풍경을 떠올렸다.

대화동보다 읍내동에 많이 살았어요. 대화동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략) 읍내동에 없는 게 없었어요. 공단에 사람이 많으니까 직장인들이 읍내동에 많이 살았거든요. 직장인들이 말집이라고 해 놔가지고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인원도 많았고. (중략) 미장원이나 슈퍼 하는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다고 하죠. 왜냐면 장사도 잘 됐고, 옛날에는 생선 가게도 광주리에 이고 다니면서 파는 아줌마들도 있었어요. 동사무소 바로 옆 골목이 시장이었고, 지금 도로 난 길부터 다 시장이었어요.(신00, 여, 50대)

공단이 입지한 대화동도 외지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화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공단 조성 초기까지도 ning마주의 집단이 있었고 선화동 다리 밑 노숙인들을 수용하던 집단시설도 있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 자녀의 병 치료를 위해 이주해온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들에게 대화동은 여전히 도시와 같은 세련된 이

미지는 아니었다.

*아주 낙후했죠. 없었죠. 지금 수영장 같은 데도 없었고요. 원명학교
만 조금, 소망병원이라고 원명학교 내에 복지병원이 있었어요. 거기만
있고 아스팔트라곤 하나 찾아보지도 못하고요. 지금 우리가 두레아파
트에 사는데, 폐지 줍는 녀마주의 터였어요. 아주 거기는 무서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원명학교라는 데로 입학시키러 왔는데, 울어도 울
어도 그렇게 온 일은 없어. 너무 무서워서, 막 바람 불고. 집들이 조금
밖에 없었어요.(김OO, 여, 60대)*

대화동 공단은 생활의 공간이면서 생존의 공간이기도 했다. 동네 주부들
에게 부업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노동자로서 삶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사회서비스는 1970-80년대 고도 성장기 한국
의 여느 공단 주변 동네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는 젊으니까 또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이라 일은 잘하니까. 그
래서 가서 1-2년 일하다보니까 직책도 올려주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
었어요. 그냥 아이들 밥 주고 밖에서 문 잠그고 그러고 출근하고, 야간
에. 밤새도록 하고 아침에 와서 밥해서 먹이고 빨래하고, 애들 학교 데
려다 주고. 그러니까 떨리는 못 떠났어요.(김OO, 여, 60대)*

오정동은 읍내동이나 대화동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른 발전경로를 겪었
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읍내동과 대화동이 공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지만, 오정동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과 그 옆에 신동아아파트
가 들어선 1987년 이후에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모여들어 주거지가 형성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심의 신도심개발방식은 아니
었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그 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주
거지역 성격이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오정동 공구상가 거리는 1989년
에 구백공구가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한 후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한남오거리에서 한밭대교 사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갔다. 이곳에

공구상가들이 입지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원동에 위치해 있던 공구거리가 임대료의 상승, 노변 주차금지와 원도심 쇠퇴 등의 이유로 대체지가 필요했다. 오정동은 교통여건상 시내와 인접한 다른 도시와의 거래에도 유리했고, 당시 토지과다보유세제도의 도입으로 오정동 토지소유주들이 조립식 가건물을 짓고 낮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세금부담을 피하려는 등의 조건이 작용했다. 원동에서 영업을 하던 영업주도 있었지만 종업원들도 상당 수 자신의 영업장을 개장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정혜윤, 2017: 33-34). 즉 지방정부의 계획된 개발계획에 의한 조성은 아니었다.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공구상가 거리는 이후 둔산을 비롯한 신도심개발과 대전엑스포 개최 등 건설경기의 상승과 더불어 2000년대 후반까지 확장되어 갔다.

이렇게 성장을 하던 세 지역은 대화동 공단 입주업체의 침체와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둔산 등 신도심 개발에 따른 인구유출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침체되기 시작했다. 그 시기는 대체로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외지인의 눈에 비친 대전, 대전사람

대화동 공단의 조성과 함께 저마다의 신화를 품고 다양한 사람들이 대전으로 이주해 왔다. 어떤 이에게는 취업해서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곳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공부하러 오는 곳이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남편의 직장을 따라 온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들에 눈에 비친 대전의 첫 인상도 저마다 달랐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엑스포 했던 것? 제가 처음 대전에 왔을 때 한참 엑스포 공사하고 있었어요. 대전하면 계룡산 생각났었고 한밭이라고 해서 큰 밭이었다 이정도만. 대전에 대해서는 유명한 걸 몰랐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공부를 잘 하는 아이가 대전으로 왔고 돈 벌러는 서울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러는 당연히 와야 되는 곳? 이 정도로 저는 대전을 알고 있었어요.(최00, 여, 40대)

깨끗하다? 부산은 생각보다 상당히 그 당시에 거리가 깨끗하지 못했
어요. 대전에 왔는데 굴러다니는 게 없었어요. (중략) 그리고 조용하다?
처음에는 차도 많지 않았고 도로도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
던 것 같아요.(원OO, 남, 50대)

완전 시골 같았어요. 완전 시골이야. 아니, 대전역에 딱 내렸는데 어
떻게 이렇게 발전이 하나도 안 될 수가 있나 그랬어요. 옛날 우리 동
대구역은 안 그랬잖아요? 대구역 조금 그래도. 그땐 완전 여기 대전역
이 초라했어요. 내가 잘못 왔구나 생각까지 했어요.(남OO, 여, 40대)

청주는 공기가 참 좋았거든요. 근데 대전에 오니까 항상 날씨가 뿌
예요. 저는 처음에는 흐린 날씨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공
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화동에서 나와서 그런지. 그게 일주일 중
에 맑은 날이 두 번 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항상 안개 낀 것 같고.(김
OO, 여, 50대)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다가왔지만 사람들, 즉 대
전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순박함, 순수함, 착함 등의 유사한 느낌을 받
았다고들 한다. 하지만 같은 충청도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평가도 있었다.
청양에서 대전에 있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이주해 온 어떤 이는 대전 사람
은 충청도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도 했다.

청양은 제 고향이니까 순박하고 정감 있고 그런데, 대전은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그러니
까 충청도의 기본적인 습성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믹싱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혼합이 된 거죠. 원래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
고 하지만 화끈해요. 근데 요기 대전 오니까 뜨뜻미지근한 거죠. 이것
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전라도 사람도 아니
고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안OO, 남, 50대)

3. 현재 생활세계에 대한 인식

1) 마을의 현재에 대한 인식

마을공동체는 일상적인 생활세계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어떠한 목적의식적 집합체라기보다는 삶의 공간에 대한 공통된 시·공간적 경험의 산물로서 전통이 지속되고 구성원의 전인격적 관계가 상호작용하는 장소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농촌 자연부락뿐만 아니라 비록 관리차원에서 구획된 현대의 도시 내 마을공동체도 거주자들로 하여금 장소성과 역사적 경험의 공유를 통해 그 내부에서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기획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의 공유와 장소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시간과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유동성을 보이기도 한다.

읍내동, 대화동, 오정동 지역에는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설의 노후와 사람들의 노령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신도심 개발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쇠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도시의 성장을 이끌었던 대화동 공단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구상가 거리는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는 소외, 낙후와 같이 다소 부정적 단어들로 표현되었다. 그렇지만 인식은 사람들마다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아주 낙후된 동네, 아주 힘든 동네. 왜냐면 돈은 있지만 안 돼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는 동네. 그래요. 옛날에는 공장에서 폐기물 태워서 나는 까만 연기 다 맞으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지금 진짜, 불쌍하신 70-80대 할머니들만 살고 있어요.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땅, 집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통 같은 경우는 제일로 낙후 되가지고, 거기가 제일로 명동이었었는데 그때는. 명동거리예요, 거기가. 근데 지금은 제일로 낙후 되어가지고. 그때 지은 집들이 지금은 현 집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밖에 없어

요. 그리고 나 같이 장애인이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있고. 그래서 지
키고 있는 거예요. 대화동은 진짜 불쌍한 사람만 사는 낙후된 동네예
요.(김OO, 여, 60대)

소외된 지역. 대전시나 대덕구청도 다른 지역은 다 신경을 쓰는데
대화동에는 전혀 그런 신경을 안 써요. 예를 들면, 문화시설을 하나 확
충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 중리동, 범동으로 간다고요. 읍내동,
대화동에 그런 기반시설이 들어온 게 문예회관 그거 하나 밖에 없어
요. (중략) 여기는 그냥 공장 지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그냥 소외
된 지역인거죠.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소외라고 해도 되겠네요.(안OO,
남, 50대)

공단 조성이 40여 년이 지나면서 대화동은 점차 시설과 사람이 노후화,
노령화되어 갔다. 이러한 현실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의 약화로 인한 소
외로까지 인식되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다른 측면에서
인식되는 사례도 있었다.

처음에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대화동에서 안 보내려고 했
어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많고 편견에, 처음에는
꺼렸었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훨씬 더 정서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리
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4명 키우다 보니까 이 동네가 더 편했어
요. 왜냐면 덜 경쟁적이고 아이들도 잘 어울리고. 가오동에 있었을 때
는 도시문화, 아파트 평수, 재산 등을 건주는 게 정서상 저랑은 안 맞
았던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깐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되고
아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안 해도 되니까 긍정적 이었어요, 후에는,
초반보다.(최OO, 여, 40대)

공단이 노후화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이 늘어남에 따라 규모
도 축소되어 갔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해 들어오면서 원주민들
과의 관계에서 긴장관계가 형성되기 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화동의 마을

공동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노령인구의 증가는 이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들. 저희 골목에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동네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집을 세를 내놓고 이주를 해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살아요. (중략) 담벼락에 빨래한 옷을 널어놓기도 하고 밤에 윗옷을 벗고 돌아다닌다거나. 여기서 오래 사신 어르신 분들은 낯선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고 다니면 좀 무섭잖아요. 저희 골목에도 몇 명 살았었는데, 알고 보면 나쁜 친구들은 아니에요. 인사성도 되게 밝고 하지만 분위기 자체와 문화가 다르니까 꺼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이OO, 남, 40대)

느끼는 것도 무서워요. 다문화들이 많아서. (중략) 그냥 막 시리아 사람들은 왜 다 쓰고 다니냐고? 그리고 두레아파트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진짜 무서워요, 위험해요. (중략) 못 어울리죠. 대화가 안 되니깐요. 근데 우리 손녀딸은 애가 올라가다 뭐 물어보면 대화는 해주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다니니까. 그런 애들은 말하는데, 우리는 몰라서 못 해요.(김OO, 여, 60대)

대화동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지원 활동이 몇몇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한국사람 편을 들지 않고 외국사람 편을 든다는 식으로 원주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들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중이다.

오정동도 1980년대 후반부터 정착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젊은 층은 직장이나 학교 진학 등을 이유로 외부로 나가고 있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은 BRT 노선이 생기고 소규모 공장들이 동네 골목에 점차 늘어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전에 원주민들 사이 형성되어 있던 마을공동체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져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다른 데서 정착하고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을 팔 수 밖에 없는데, 팔면 다른 공장형들이 흡수를 해서 그냥 다 털어버리고 공장으로 만드는 거죠. 저희 집 앞 블록은 예전엔 다 주택이었는데 지금은 다 가 건물, 샌드위치 판자로 지은 그런 상가형 공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중략) 사무실 사람들 때문에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매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중략)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의외로 이른 시간에 엄청 세계 달려요.(이OO, 여, 40대)

[그림 13] 오정동 공구업체 분포



출처 : 정혜윤(2017: 5)에서 수정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공산품특화거리를 중심으로 공구상가가 형성

되었지만, 현재는 관련 산업의 확장, 좋은 교통 입지와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구입비 혹은 임대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규모 공장들이 주거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조금씩 모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던 세대가 고령화되고 그 자녀들은 외지로 나가면서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⁷⁾ 그 빈 자리에 이제는 공구나 소규모 제조업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변두리 신주택지에서 중소 제조업체들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원주민들은 이러한 현상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정동 개발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오정동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공구상가 거리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도매시장이어서 소매가격으로 사기에는 오히려 가격부담이 크거나 이로 인해 골목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물건을 수송하는 차량들로 인해 주거환경이 더 악화되었다고 느낀다는 대답이 대다수였다. 도시의 상징성과 생활세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⁸⁾

오정동에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철교라는 존재가 주민들 사이의 교류의 범위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했던 도시생활의 틈새가 생활세계를 규정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화정초등학교 주변도 옛날부터 정착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옛

7) 오정동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정동에는 두 개의 초등학교(화정초등학교, 동도초등학교)와 하나의 중학교(오정중학교)가 있다. 화정초등학교는 2017년 신입생이 65명이었고(화정초등학교 홈페이지), 동도초등학교는 26명에 불과했다(동도초등학교 홈페이지). 오정중학교의 경우 1986년에 개교하면서 27학급에 549명의 신입생 규모였는데 30년이 지난 2017년에는 신입생이 39명으로 급격히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오정중학교 홈페이지). 도심에 위치한 학교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적은 수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인구감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8) 이러한 현상은 대전의 도시이미지로 언급되는 과학도시에 대한 태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뒤에 이어지는 현재의 대전에 대한 인식에서 살펴본다.

날에는 논이나 밭들이 집 주변이다 보니 이만큼 멀리도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중략) 호남철교 밑에 사시는 어르신들 보니까 그 밑에까지는 안 넘어가요. 저희 집은 구청 주변인데, 그쪽까지는 건너편이랑 형님, 동생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하시는데. 호남철교 넘어가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 동네 사는데 오정동 사냐고 묻기도 하고.(이OO, 여, 40대)

논과 밭을 생활기반으로 지내던 농촌사회 시절에는 서로의 왕래가 자연스러웠지만 철도라고 하는 근대의 산물이 생활에 개입하면서 상호관계성을 축소시켰다. 근대적 현상, 즉 산업화와 도시화가 단일한 문화공동체를 해체하고 분리시켜 온 것이다. 오정동과 대화동 주민들은 이전에 서로 형님 아우로 지내고 잔치가 있으면 함께 음식도 나누며 단일한 문화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구역이 나뉘고 시대가 변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옛날에는 좋았죠. 우리 모임에서 잔치할 때도 일단은 형님네 집에 먼저 가고 동생, 아우 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까지는 형님, 형님 했었어요. 오정동은 큰 집인 줄 알았어요. (중략) 그때는 충무체육관에서 잔치를 해도 형님네 집에서 뭐 가지고 오고, 부침개 부치면 먹으라고 가져다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을금고나 신협도 같이 이루어져요. 따로 있지 않았잖아.(김OO, 여, 60대)

그저는 문화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지, 그저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지. 옛날에 다 그렇게 했지. 옛날에는 결혼식 하는 집에다가 부침개 부쳐주고. 읍내동하고는 떨어졌고 대화동하고 오정동은 큰 집, 작은 집이라고 해가지고 항상.(박OO, 여, 60대)

이러한 관계는 위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읍내동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대화동 공단지라는 매개를 두고 있으면서도 읍내동과

대화·오정동이 다른 문화권이었던 것은 도시 형성과정이 달랐던 요인이 작용한 것일 수 있겠다. 오히려 읍내동은 이러한 근대적 도시생활의 틈새로 인해 내부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읍내동도 오정동과 같이 철도가 도시의 한가운데를 나누고 있다. 그 철도를 가운데 두고 장군의 전설을 간직한 장군바위와 당산, 그리고 향교가 있는 옛 동네와 아파트가 들어선 동네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옛 동네도 그 안에 들어선 아파트와 주택가가 서로의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주택가는 또 다시 당아래 동네와 향교가 있는 동네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살면서 읍내동에서 살던 분들이 현대아파트로 많이 이사를 가셨어요. (중략)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읍내동에 대해서 잘 알려고 안 하죠. 왜냐면 알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읍내동인데, 시설이 바뀌어서 현대아파트가 읍내동이잖아요. 그래서 택시운전수들이 타면 읍내동 가자고 하면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요. (중략) 넓은 도로가 생기고 버스도 그쪽이 더 편리성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환경이 바뀌니까 사람들도 바뀌더라 이거지. (중략) (백송아파트에) 외주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다 하는데, 또 분리돼요. 아파트는 자기들끼리의 회의가 있어요. 아파트는 아파트 축제로 하는데, 언제 같이 합치냐 하면 읍내동 축제 할 때, 그 때는 다 모이죠. 그럴 때 다 보는 거죠.(신OO, 여, 50대)

동사무소, 향교, 파출소, 초등학교 등 도시서비스 기능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원 동네는 근대적 건축 산물인 아파트에게 상징적 정체성을 빼앗긴 것이다.

2) 대전의 현실에 대한 인식

이들이 대전으로 이주해 들어오면서 느꼈던 다른 도시에 비해 저발전된

상태, 혼합된 문화, 순박한 사람들의 도시이미지는 현재에 있어 어떤 이미지로 바뀌었을까하는 궁금함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편리한 교통, 쾌적한 자연환경, 그리고 낮은 물가로 살기 좋은 도시 등의 대답을 했다. 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응답에는 “돈만 있으면”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말도 부연되었다. 그리고 그간 강조되어 왔던 양반도시나 과학도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적어도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에게 과학도시는 생활세계와는 연관을 갖지 못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신화의 대상이었다.

근데 그게 뉴스로만 나오지, 현실에서 봤을 때는 과학도시라고 해서 특별히 과학의 도시라고 만드는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게. 왜냐면 뉴스나 칼럼에서 많이 나오지만 대전에 살면서 과학도시라서 다른 도시보다 낫다는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중략) 그거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느낌이. 거기 사는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연구단지에 지인이 있었는데 그 분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다른 나라 세계 얘기하는 것 같고. 느낌이. 공감대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신OO, 여, 50대)

(연구단지에 있지 않은) 사람들 하고는 관계가 없지. 관계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 과학도시라는 이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엑스포, 그것 때문에 과학도시라고 부각이 됐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을 집어넣고 싶은 동네?(남OO, 여, 50대)

거기는 최하 석사는 따야 들어가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는 서민들하고 조금 동떨어진 곳이라고 봐야 되나, 좀 그렇죠. 일반인들이 넘볼 수 없는 직장. (중략) 그런 조건을 내가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깐 일반적으로 기능직 사람들은 거기서 받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김OO, 남, 60대)

양반도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그 상징들이 퇴색되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양반이라는 것은 과거에 존재하던 것으로 돌리는 이도 있었다.

뫼 충청도는 다 양반도시라고 하잖아요. 대전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죠. 송시열 같은 문인들이 대전 사람이고 대전에서 활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양반의 도시에서 벗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굳이 의미를 찾자면 그런 의미들이 퇴색됐다고 보죠. 양반도시만큼의 어떤 전통을 세워가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죠. 대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드시피 문화가 혼합되다 보니까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들이 다 없어졌어요.(안OO, 남, 50대)

양반? 양반은 내가 시집 올 때까지 있던 거지. 그런 거 없었어요. 양반, 상놈 가리고 살고 그런 건 없었어요. 다 같이 평범하게.(천OO, 여, 70대)

4. 미래에 대한 기대

이상에서 살펴본 읍내동, 대화동, 오정동은 삶의 꿈과 희망을 일구고자 정착하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었다. 전형적인 농촌에서 산업화의 물결로 도시화를 겪었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 발전의 핵심이었던 공단은 노후화 되고 기존의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고 있으며, 주택지역 내로 소규모 공장들이 밀려들어 오면서 공동체는 서서히 해체되어 가고 있었다. 산업화 시기 정착해 살던 원주민들의 자녀들은 이제 성장해 외지로 일자리를 찾아 혹은 그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떠나가고 이제 도시의 촌로들이 골목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강하는 도시성장주기 국면에서 이곳에서 젊음의 황금기 보내거나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미래를 바라고 있는지 들어 보았다.

1) 개발과 공동체

장소 정체성에 관한 이러한 수직적, 수평적 상호작용은 물리적 변화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인식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다. 과거의 추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아파트 중심의 대규모 개발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주민과 행정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령인구와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바라기도 했다.

살다보니까 제가 바라는 대화동은 한쪽은 발전을 하지만 한편으로 기준에 가지고 있는 정서를 조금. 요즘 도시화라고 하지만 도시화에 또 다른 이웃과의 소통이 삶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

계 같이 공유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중략)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지내다보니까 옆에 공단이 있고 사업체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을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이 선 거권에는 재원이 많이 가는데 그런 계 없는 쪽에는 재원이 안 오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중략) 공단 다니거나 일하는 부모들이 많다보니까 아이들끼리 어울려 노는 건 좋은데,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 (중략) 아이들에 대한 문화나 지원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이 보살펴주고 어울려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만들면서 개발되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해봐요.(최00, 여, 40대)

이제 고속도로 회덕 지점 생긴다니까 생길지 모르지만 그거 생기면 더 편해지겠죠. 주거환경만 변하면, 아파트만 들어온다면 한편으로는 좋지만 도시화가 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산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중략) 계족산도 예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황톳길이라고 해도 옛날 고유의 계족산이 없잖아요. 너무 길을 많이 해 놓은 거야. 옛날에는 법성사 올라가는 길하고 장동 산성 길, 추동 길만 있었는데. 지금은 길이 하도 많아서. 오히려 훼손한 거지, 따지면. 법동 길, 송촌 길 가 봐요. 다 길이야, 길. 그래서 예전의 산이 없어진 것 같아. (신00, 여, 50대)

노후해 가는 주거시설의 개선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노령화된 세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지 않고 다시 정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기를 바라기도 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재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서 대전 시내 다른 곳에서는 전세도 얻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은 것도 현실이다.

뉴스테이 마냥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오정동도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불우한 사람들도 있는데. 둘이 살면 아파트 24평도 필요 없죠. 주공 식으로 15-18평은 좀 그럴지 몰라도 최대한 작은 평수로 둘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분들 현실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최00, 남, 40대)

저는 일단 흉물스러운 동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깨끗하고 반듯한 아파트가 들어오길 바라지는 않아요. 저는 대화동, 읍내동, 회덕은 어느 정도 전원생활이 가능한 그런 대전의 변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실버타운, 노인들이 살 수 있는 동네. 그 다음 좀 안락한 동네. (중략) 도시 같지만 도시 같지 않은. 그래서 아이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중략) 그래서 산, 들, 자연을 살리고, 갑천도 흐르잖아요. 거기에 주변을 조성해서 편하고 안락하게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예요.(이00, 남, 40대)

2) 대전의 미래

마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과 달리 대전의 미래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일자리가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통의 요지, 엑스포를 개최했던 도시, 자연재해 없는 도시,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도시⁹⁾ 등 대전과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연상했지만 정작 미래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서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만큼 현재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경험과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의 다른 신화를 기대할 수 있는 역사가 사라진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다. 대전을 ‘떠나가는 나그네 도시’로 규정했던 김민수는 대전의 이미지 변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직설한 바 있다.

“자신의 장점을 잘 가꿔 나가는 대신에 허황된 꿈을 좇아 미련 없이 떠나가는 나그네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재확인시

9) 어떤 이는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도시를 “공무원의 요충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전이라는 도시의 직업구성의 특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켜 주는 것이 최근 한빛탑 동쪽에 세워진 경관을 무시한 고층아파트 ‘스마트시티’ 건설이다. 이제 대전의 꿈은 도시의 상징과도 같았던 한빛탑을 한순간에 폐기하고 덧없는 아파트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한국과학기술의 상징이요 대전의 상징이라고 그동안 외쳐왔던 한빛탑마저도 하찮게 간주하는 대전의 현실에서 더 이상 무슨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아할 뿐이다.” (김민수, 2009: 278-279)

물론 실제로 한빛탑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한빛탑을 중심으로 엑스포공원 재창조 기획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과학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새로운 첨단과학기술 연구시설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대전 시민들이 그곳에서 진행 중인 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생활세계와 공통분모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정서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근대도시로서의 특성에서 대전 도시정체성 수립의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철도 부설과 도청 이전, 그리고 전후 산업화 과정에서 각지에서 유입되어 온 외부인들과 원주민들이 어울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신화를 새길 수 있는 대전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고려해야 할 다른 요인은 과거에 도시를 형성했던 인구구성상에서 이제 대전에서 나고 자라는 세대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세대들이 느끼는 대전에 대한 이미지와 대전 사람으로서 정체성은 인터뷰에 응했던 세대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 생활세계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6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의미
2. 정책적 함의

이 보고서는 대전의 도시 정체성 형성에 대한 네 번째 연구결과로서 크게 세 개의 범주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세 개의 범주는 첫째, 지역민으로서의 기억, 둘째, 대전에 대한 인식, 셋째, 지역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다. 첫째, 지역민으로서의 기억은 대전시의 각 동에 거주하는 동민으로서 살아오면서 축적해온 경험 곧, 지역민의 생활사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전에 대한 인식은 대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민의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셋째, 지역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통해 그러한 지역민들의 구상이 어떻게 지역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도시 정체성’ 연구는 객관적인 사실과 공식적인 지표들에 연구의 기본적인 바탕을 두면서, 특히 개인의 기억과 감정을 주요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 개인의 기억과 감정은 주관적인 것으로 여겨져 학술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실질적 정책 연구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 개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저서가 영어로 번역 소개되고, 또한 영국 버밍엄대학교의 대중기억연구분과(Popular Memory Group)를 중심으로 대중의 기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1980년대 이후부터 개인의 기억이 가지는 학술적 의의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 특히 기억 연구가 활성화되었는데, 주로 공식적인 문서와 기록에서 배제되거나 빈 칸으로 남아있던 분야에서 많이 시도되었다. 이 도시 정체성 연구는 그러한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대중 기억’ 연구를 도시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주제에 접목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처럼 객관적인 사실과 공식적인 지표들에 더하여 각 개인의 기억 진술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거둘 수 있는 연구의 효과는 여러 가지이다. 특히 학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가치를 가진다. 먼저 학술적 측면에서 사료적 가치를 얘기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구술하는 내용은 향후 당시 상황을 체감케 하는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된다. 하나의 예로 본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둔산3동의 동명 개명에 대한 구술 사례들은 둔산 개발이 실제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그들의 생활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매우 섬

세하게 전달해주는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다.

더 나가 개인의 구술 자료는 개인의 삶과 기억 속에 담겨있는 공동체의 감수성도 확인하게 해준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갖게 되는 공통된 의식과 감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도 다시 세대에 따라서, 또는 그 지역에 유입된 시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식과 감정이 형성된다. 그 다음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정책적 판단을 위한 유용한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크고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도시 개발과 도시의 공간적 구조 변경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1. 연구결과의 의미

이러한 학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이라는 기본 관점에서 연구 결과의 의미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개의 범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억과 도시 정체성, 변화의 수용과 대응

인터뷰 내용에 잘 드러나듯이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해온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어서, 그들의 구술에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능숙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공간적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및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에 대한 해박한 파악을 살펴볼 수 있고, 그들 스스로가 이런 인터뷰에 임하여 과거의 사실들을 해박하게 파악하고 기억해내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하여 인간은 누구나 다 역사가이고 심리학자이며 평론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기억 속 도시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변화의 수용이고, 둘째는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먼저 변화를 수용하는 모습은 개발의 긍정적 효과와 관련이 있다. 가수원-정림-도마동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상전벽해”를 이룬 개발 효과에 대한 구술의 결론은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어졌잖아요”처럼 매우 긍정적인 형태를 띤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관련된 구술에서는 변화 전과 변화 후의 상황이 비교될 때, 변화 전의 낙후성과 변화 후의 편의성이 선명하게 대비된다. 특히 변화 이전의 고생담이나 열악한 도로사정과 배수시설의 미비 같은 사례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복원되지만, 거기에는 일종의 추억담의 성격도 가미되어서 불편하고 낙후된 과거의 상황을 기억하는 것에 일종의 ‘옛 얘기’하는 즐거움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변화를 수용하는 모습에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이때는 추억담보다는 논평의 성격이 부각된다. 대화동 사례에서 보듯이 이 지역민들의 구술에는 두 번의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농촌지역에서 공단으로 조성된 변화이다. 공단 조성으로 외지인이 대거 유입되고 공해도 유발되었지만 지역 경제는 활성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가 두 번째 변화는 신도심 개발로 인한 상대적 퇴락으로 나타난다. 신도심 개발 이후에는 이미 대화동의 공단과 농수산물시장 등은 노후화된 시설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해와 쓰레기, 교통 혼잡,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부정적인 요인들만 지역민들의 인식에 부각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어 다시금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고, 문화적 행정적 소외감이 드러나고 있다. 둔산3동의 경우에도 둔산 개발 당시 잠깐 반짝 경기를 맞보기도 했지만, 개발이 완료된 다음부터 오히려 개발 효과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버린 통에 오히려 기존의 지역 경제의 생태계가 손상을 입는 부작용을 떠안게 되었다. 삼천동에서 둔산3동으로의 동명 변경을 추진한 지역민의 움직임 속에는 이와 같은 지역개발로 인한 인근 지역과의 현격한 격차에 대한 정서적 박탈감과 걱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변화에 대한 대응은 과거 상황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면서,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문제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데 대한 고민의 술회이기도 하다. 그들의 고민은 다름없는 지역적 고민인 것이고, 그런 고민의 술회 속에 지역민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도마동, 정림동, 탄방동 등에서 그

런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도마동의 경우 도솔산 산신제가 지역에서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도솔산 산신제는 외향적으로는 지역민들의 공동체 행사로 매년 잘 진행되고 있고, 전통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이 표현된 행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인터뷰를 통해 볼 때 그에 대해 세대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알게 된다. 70대에서는 도솔산 산신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반면, 50대에서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평가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다. 또, 정림동 본토박이 향우회의 봉사활동도 그렇다. 외양으로는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지만, 본토박이의 기준이 모호해져 갈등이 빚어진 적이 있다고 하는 데에서 보듯이 인구구성의 변화로 전통적 주민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탄방동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사이에 정서적인 교류가 매우 잘 이루어져온 곳으로 유명한데, 최근 원룸 다세대 주택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주민들이 “품어주려는 노력”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소통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대한 고민이 술회되고 있다.

이처럼 기억의 구술을 통해 볼 때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변화 또는 대전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커다란 변화를 겪으며 각 지역민들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변화를 통한 긍정적인 발전, 전통적인 공동체 관계의 와해, 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한데 따른 소외감, 환경문제와 같은 각종 피해 등은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내용들이다.

2) 일상생활 속 체감과 도시 정체성

조사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진술한 대전에 대한 인식을 통해 볼 때, 도시 정체성 형성에 시민들의 생활세계와의 연결이 얼마나 핵심적인 조건인지 잘 나타난다. 대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크게 세 가지 속성으로 묶인다. 첫째, 과학도시, 둘째, 양반도시, 셋째, 복합도시가 그것들이다.

먼저 대전 시민들은 대전이 과학도시라는데 대해 거의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구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런 일치된 태도

안에는 양가적인 측면이 담겨있다. 과학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연구단지와 엑스포 개최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이 근거로 작용하고 있고, 대전 시민에게 그것이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과학도시라는 상징이 비록 ‘대전의 것’ 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민들은 그것이 ‘나의 것’ 이라고 하는 데에는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석 결과 세 가지 정도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학도시의 상징성을 부여받는데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는 연구단지가 대전시와 대전시민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안시설이 많아 개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역민들과 섞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연구단지는 분명 대전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전 시민 개개인의 삶과 어떤 연관 속에 있는지를 체감하지는 못하는 어떤 고립된 섬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과학도시라는 상징이 하나의 상징적 브랜드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대전 시민들의 생활이 ‘과학’ 이라는 수사(rhetoric)에 걸맞게 과학기술적 체계로 이루어져있다거나, 첨단 의 것을 특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도시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지는 못하다. 마지막으로 대전 시민들은 대전이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일원인 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건립 예정지인 점 등에 대해 거의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가 시민들에게 잘 도달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양반도시에 대해서는 대전 시민들이 자기 정체성의 요소로서 여기고 있지 않은데, 과학도시와는 조금 다른 이유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속 체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대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양반도시라는 속성은 먼저 그것이 현재와는 단절된 먼 과거의 문화라는 점에서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다. 또한 충청도의 정체성을 나눠받는 정도라는 생각은 있지만 양반도시라는 것이 대전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여기는 태도는 미약해 보인다. 오히려 양반도시라는 어사를 통해 느껴지는 어떤 여유 있는 생활 태도라는 2차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든지, 또는 오히려 양반도시의 성격과는 반대되는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등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대전에 대한 인식 가운데, 사례가 많지는 않아도 대체로 공감을 사는 특성은 ‘복합도시, 다양성, 교통의 요지’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다. 대전에는 연구단지와 정부청사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크게 내세울만한 국가적인 단위의 기구들이 있고, 여기에 교통의 요지로서의 입지 상의 유리함, 그리고 출신지역이 다양한 대전 시민의 인구 구성 등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 폭넓게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지역민의 구술 내용을 봐도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이 반영되어 있다. 대전의 이러한 특징의 긍정적인 점은 텃세 없고, 인심 좋고, 깨끗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에 반해 부정적인 점은 근원적인 특성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즉, 역사적 문화적 전통의 취약성, 충청도의 특성이 미약하고 전국각지의 특성이 섞여(‘믹싱’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긍정적, 부정적 특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이런 평가에 대전 시민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기에 유입된 인구와 오래전부터 거주한 토박이 인구가 적절하게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보면 도시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난다. 이런 결론은 대전시와 기초단체들에서 최근 조성한 축제나 대전팔경 등의 대표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진술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역민의 삶에서 비롯되고 또한 뿌리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도 폭넓게 자리 잡게 된다는 함의를 읽을 필요가 있다.

3) 전통-현재-미래가 연계된 지역 정체성

대전과 자기 지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에는 대체로 상투적인 개발 방안에 대한 내용이 많았지만, 그 속에도 역시 생활 속에서 겪은 경험이 녹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대전의 내적 불균형과 외적 불균형에 대한 인식이다.

먼저 외적 불균형은 서울과의 관계 속에서 대전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인식이다. 대전은 산업적인 도시의 성격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내적 불균형에 대한 진술은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복잡적이다. 대전 내 동 간의 불균형, 같은 동 안에서도 이주 시기나 세대에 따른 이질성 등으로 인해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대전 내 동 간의 불균형은 어은동 개발로 인한 정림동의 쇠락, 지역개발이 오히려 관저동과 도안동 등의 분리로 이어져 지역의 위축을 우려하게 되는 가수원동, 둔산과 유성 개발에 따른 삼천동, 오정동과 대화동, 그리고 가수원동, 정림동, 도마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다. 그리고 같은 동 안에서도 서로 이질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는 도마동의 세대 간 차이, 정림동의 이주 시기의 차이, 탄방동과 갈마동의 원룸촌 형성에 따른 소통의 단절 등이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지역 내의 불균형과 이질화 현상을 살펴보면, 전통에 대한 정서적 차이, 전통적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관계와 나중에 이주한 사람들 간의 정체성 차이, 그리고 교통과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만 조성된 원룸촌 입주자와 기존의 공동체적 교류에 바탕을 둔 거주민들 사이에 드러나는 주거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조건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정체성의 내적 불균형에는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이번 대전 도시 정체성 연구를 통해 의미심장한 몇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1) 지역민의 생활과 연계된 정책

먼저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지역민의 생활과 연계된 정책이 바

람직하다는 점이다. 최근에 생긴 축제나 대전팔경 등이 대전을 상징하느냐 하는 대표성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검토해봄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 시민과 각 동 주민들의 삶에 뿌리내리고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과학도시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대전시가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일원인 점이라든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건립 예정지인 점에 대해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현상을 통해 과학도시 정체성과 관련한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가 대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도시 시스템의 도입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내가(또는 우리가) 만든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명실상부한 상징성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지역민의 노력에 부응하는 정책

지역민의 노력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각 지역마다 지역 내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불균형이나 이질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도 강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동네 상점 이용하기부터 예술마을(예술거리) 조성을 위한 예술인협동조합 행사 주최 등 자구 노력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원주민 토박이와 1990년대 아파트 이주민 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미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높은 지역의 경우, 그런 강한 공동체적 유대감으로 인해 빈곤노인층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지역 내 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형성된 원룸층 입주자들은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정서가 활성화된 지역사람들에게 조차 난공불락의, 일종의 지역 내 섬과 같은 곳으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되면 기존의 공동체의 건강성까지 손상될 우려가 있다. 대전시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원룸 다세대 주택 입주자들도 함께 지역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열기 위해서는 섬세하면서도 집중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3) 지역민의 감정과 상상력을 포용하는 정책

지역민의 감정과 상상력을 포용하는 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이 된 여러 사람들이 문화적, 행정적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교통상황으로 봐서는 시급성이 덜한 트램이나 도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어느 지역민은 “필요성보다는 유성이나 둔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 이는 정책적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은 마음을 어떤 상투적 개발 요구 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도시 개발이나 공간의 구조 변경, 또는 투자 유치 등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민의 의견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긴요하지 않은 상투적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상상력과 전문가의 협업 속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대규모 개발이나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주거지역으로의 개발보다는 “홍물스럽지 않은 동네... 도시 내 도시 같지 않은 안락한 동네... 전원생활이 가능한 변두리”를 원하는 내용은 귀 기울여 들을만한 제안으로 여겨진다. 또, 일하는 부모들이 많은 지역의 경우 그저 아이들끼리 어울려 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그런 아이들을... 문화적으로 지원하고... 보살펴주면서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동네가 되기를 바라는 제안은 도시 재생의 방향성을 알려준다. 퇴락한 지역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정을 나누고 어울려 지내는 우리 동네라는 한 차원 높은 정체성으로의 승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전 시민이자 아홉 개 동 주민들의 진술은 우리에게 도시가 기능과 감정의 결합체이고, 감정을 통해서 도시는 사람 사는 공간이 되어간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들의 진술 내용은 또한 지금 도시 정체성 재정립의 방향성이 구조 속에 종속된 인간에서, 인간 중심의 구조화라는 관점의 커다란 변화에 맞추어야 할 것을 함축한다.

참고문헌

- 김민수(2009),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 그린비.
- 김왕배(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 대전광역시(2013), <2013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오순도순>, 대전광역시.
- 박경화(2015), <지구인의 도시 사용법>, 휴.
- 박홍식(2001), 대도시 내부시가지의 변천과 전략계획적 도시재정비 방향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2013), <마을의 귀환>, 오마이북.
- 이정형(2007), <도시재생과 경관 만들기>, 발언.
- 이창기(2000), <도시형성 과정을 통해 본 대전의 역사와 문화>, 누리문화사.
- 이창무(2005), 돈의 논리와 도시 만들기, <도시와 인간>, 나남출판.
- 임영진(2016), 인구변화에 기초한 권역별 도시성장주기 분석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윤(2017), 도심 공구산업의 입지적 특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을 사례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두(2017A),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과 도시화: 위기와 대안, <희망의 도시>, 서울 연구원 엮음, 한울 아카데미.
- 최병두(2017B), 도시적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희망의 도시>, 서울연구원 엮음, 한울 아카데미.
-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1987), <대전지역 경제실태와 노동상황>, 충남민주운동청년 연합.
- 한상현 외(2016),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III)-정체성 인식에 관한 지역별 사례조사>, 대전발전연구원 정책보고서.
- Relph. E(2005),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외 옮김(2012),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대덕구청 홈페이지 <http://www.daedeok.go.kr/dpt/DPT.do>
- 다음백과 “고지,”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1g4177a> (2017.6.28)
- 동도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djdongdoes.djsch.kr>
- 오정중학교 홈페이지 <http://ojeongms.djsch.kr>
- 화정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hjes.djsch.kr>